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동성애를 주장...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에...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6월 28일 (토) 제 148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동성애, 미국장로교회 분열 촉진 독소!

월드, PCUSA 제 221차 정기총회 성직자 동성결혼 집행허용 따른 논란 보도

한국장로교회의 뿌리인 미국장로교(PCUSA)가 드디어 성직자의 동성애자 결혼 예식 집전을 인정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 219차 총회에서 이미 동성애 목사안수의 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지역 노회가 열릴 때마다 표결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월드(World)지는 미국장로교 총회 현장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전해주고 있다(PCUSA redefines marriage: Pastors in the mainline denomination can now perform same-sex marriages in states where it's legal).

미국장로교단 내 진보 세력들은 이번 결정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을 버린 것이라는 비판에 이웃을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성애를 인정, 수용하는 시대적 변화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답한 사람은 52%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은 43%였다.

그러나 문제는 교단 내에서의 "출애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교단은 2014년 현재 회원 교회 수 10,262개로 여전히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드트로이트에서 열린 PCUSA총회

심각한 교세 감소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교회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다. UMC는 교단이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개별적인 논쟁이 한인교회에서는 공식화되고 있지 않지만 동성애가 사실상 허용될 경우 목회자와 교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사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교단 탈퇴가 논의되고 있다[참조기사 11면]. 한인교회들은 동성애자 안수 등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성경의 전통적 기준에 따라 교단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측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실질적으로 동

교단에서 성경적인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장로교회평신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성경을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결정"이라며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를 훼손시키는 처사에 대해 향후 재정적인 보이콧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2011년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한 소속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인 ECO(The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를 출범시켜,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교단이 사실상 분열된 것처럼, 이번 총회 결정이 교단 분열을 가속시키는 독소가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면으로 계속)



"월드컵엔 최소한 인종차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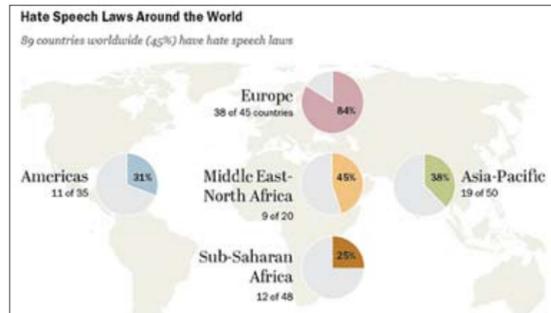
퓨포럼, 2014월드컵 통해본 세계 인종혐오연설 반대법 현황 소개

인종차별은 자신들을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인류 집단이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게 하는 차별로서, 이는 단순한 적대감만이 아니라 '호감'도 포함된다.

특히 지금 지구촌을 한껏 달구고 있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브라질에서 곤혹을 치렀다. AP통신은 지난 16일, 에스타디오 두 마라카냥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아르헨티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 중 인종차별 발언을 한 아르헨티나인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브라질월드컵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인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퓨포럼'은 이번 월드컵의 모토인 "최소한 월드컵에는 인종차별은 없다(Say No To Racism)"라는 세계축구연맹(FIFA)의 노력을 통해,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혐오, 인종차별 반대법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As FIFA attempts to curb racism at the World Cup, a look at hate speech laws worldwide).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고작 피부색 따위에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인종 차별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미 피파(FIFA)는 브라질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반 인종차별 캠페인(Say No To Racism)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사랑의 수고, 돕는 자도 회복된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오금옥 선교사(아틀란타 롬한인교회)



16면

한국인의 건강 관리법 김광은 장로(척추병원 원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4 columns: 학부, 학과, 학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 학과, 학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영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6시
3 입학 시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맨 앞에 "1"이 있어야!



은희곤 목사 (참사당교회)

얼마전 성도 한분이 카톡으로 '영적 계산 방식'이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질문은 "Good-God=?" 여기에 대한 답은 "Good-God=0", "0+God=Good"입니다. 풀이하자면 세상의 아무리 좋은 것(Good)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God)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Good-God=0). 그러나 아무 것도 아닌 삶(0)일지라도 하나님(God)만 계시면 아름답습니다(0+God=Good). 참 흥미로운 계산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0"이 4개면 만불, "0"이 6개면 100만불, "0"이 8개면 1억불. 이 계산이 맞습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0"이 많이 붙을지라도 "0"은 "0"일 따릅니다. 반드시 그 앞에 "1"이 붙어야 "0"은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0"입니다. 사람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앞에 "1"이신 하나님이 계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인생이 수고한들 헛수고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수고의 열매들과 소유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시127:1)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은 "허무"요, 이 깨달음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다가 이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마13:46)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인생 맨 앞에는 반드시 "1"이신 하나님이 계시야 합니다.

지난주일 한 성도의 개업예배를 인도하려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오신 분들 중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기일수록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이 중요하기에 개업예배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바라보며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창13). 목동들끼리 다툼이 나자 아브람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어 롯은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보고 여호와와 동산 갈고 애굽 땅과 같이 온 땅에 물이 넘쳐난 소알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큰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했습니다. 자연스레 아브람에게서 롯이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가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창12:1). 그러나 아브람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 친척을 떠나지 못한 "부분적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불편한 것들은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부분적 순종, 편의주의적 믿음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사랑하시니 이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창13:14)를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밟는 땅을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메가톤급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는 "후에", 즉 "온전한 순종"에 따라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동산과 같은 현실을 따라가는 롯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인가? 약속인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못처럼 "현실"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바로 맨 앞에 "1"을 두고 사는 "성경적 신앙", "믿음의 길", "복된 인생"입니다.

미국 프리스턴신학교 초대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가 임종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또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말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였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롬8:38-39).

"사랑의 수고, 돕는 자도 회복된다"

첼머스경제개발연구소, 가난한자 돕기 효과적 구제방법 소개

세계는 지금 긴급한 영적·물질적 공공에 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거의 30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10억 명 정도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가운데 있는 엄청난 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통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 전율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한 사람의 가치에 얼마나 큰 무게감을 두시는지 보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진심으로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도움의 균형, 바른 방법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 저소득층의 삶에 변화를 주기위해 설립된 첼머스경제개발연구소(The Chalmers Center)는 성경과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공동체개발 현장에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건전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 부와 권력이 불균형을 이루는 오늘날, 어떻게 지역교회가 변화를 가져오며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지 대담해준다.

첼머스경제개발연구소(www.thechalmers.org)는 지난 20년간 북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사회의 가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가지 영적·물질적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는, 북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제 몫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열 명 중 네 명이 하루 세 끼를 다 챙겨먹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북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배고픈 이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축구교실에 데려다주고, 직장에 목을 매며, 여름이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다.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를 고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열망을 느껴야 한다.

둘째는, 북미 그리스도인들이 빈곤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할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피주기식, 축제식, 구제하는 사람 중심의 구제나 선교와 같은 방법들은 인적, 영적, 재정적, 조직적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애초에 고치려던 문제들까지 더욱 악화시킨다.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근원적인 질환의 치료 대신 표면적인 증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도움을 주려던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차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영적 가치를 제거해버린 양상한 사회적 복음에 표류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가, 현재 선교 현장이나 북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공동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해답이다.

가난과의 싸움을 즉 무엇보다 빈곤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은 바로 회복을 위한 사역이다. 즉,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기타 창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끄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회복을 위한 사역이라는 논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동일한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저개발국가의 한 지역을 돕는 사역은 처음에는 많은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작됐다 하더라도 얼마 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구제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많은 잘못된 이유 중 하나가 "개발"이 필요한 곳에 "구제"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명 교회로서는 단순한 구제차원에서 벗어나 그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경험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교회 사역자들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교회의 구제 사역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주도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동정을 베푸는 것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계좌에 송금을 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돌보고 양육하는 공동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다른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개발 차원까지 가도록 자립심 심어줘야 상호 관계 중시·자활 성과 맛보도록

들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빼앗는 일이다. 우리가 돕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주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도움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그들과 힘을 합해" 제거하는데 집중돼야 한다.

2. 돈이 아니라 관계로 도와야 한다.

인가까지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이런 과감한 시도가 필요함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3. 눈에 띄는 자활의 성과들을 맛보게 해야 한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월드컵엔 최소한 인종차별은 없다”

(1면에서 계속)
 브라질에서는 인종 혐오 발언이나 연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2012년 자료로, 현재 지구촌에는 89개 국가 중 45%가 혐오 연설이나 발언을 처벌하는 반인종 차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 법안의 실효성이다. 다시 말해서, 성문화된 반인종차별법이 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에서도 법의 강제성 즉 처벌이 너무 느슨하기에 풀리지 않고 인종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스페인에서 브라질과의

들어왔다. 아직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두 얻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은 불법이며 만약에 프랑스 국민이 아닌 사람이 동 발언이나 표현을 사용하면 추방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게 단속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은 특별히 축구와 관련된 스포츠에 해당되는 반인종혐오 금지법안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축구는 유럽에서 모든 유럽인들이 광분할 정도로 사랑받는 운동 경기이다. 영국은 1991년부터, 축구 경기를 보면서 관중들이 인종에 관한 잡담들을 금지시키는 법(the Football Offences Act)을 시행하고 있

월감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즉 문화적이든 기술적이든 어떤 민족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의식에 자리 잡으면 그 우월의식을 통해 상대민족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문명의 총돌’에서 인류 역사를 고찰한 것을 보면 만일 어떤 국민, 민족이 문화, 기술, 사회 등등 전반적인 수준에 다른 타민족에 비해 엄청나게 우월하다면 그 타민족들은 그 국민, 민족의 제도, 풍습 등을 따라하기 마련이고 상대 민족이 피지배 민족이거나 생산력 및 문화 수준이 낮다면, 그만큼 피지배 민족의 문화가 지배 민족에 퍼지는 속도가 늦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우월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월의식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는 차별의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러한 잘못된 우월의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기독교인의 언어생활

모든 생물은 자신의 존재나 의사,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지르다든지 몸짓을 하고 꼬리를 흔들다든지 꿈틀거리다든지, 각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 방법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것이다. 초목이나 짐승이나 곤충에게는 정돈되고 조직화된 언어가 없다. 사람만이 말을 하고 산다.
 언어란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독특한 가치관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와 더불어 느끼며 언어 속에서 존재한다.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셋째,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 한다. 예수에 관하여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시침을 때는 사람들,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들, 입은 있지만 말은 없는 사람들이다. 의미를 담아 외치는 소리가 웅변이라면 그보다 더 웅장한 웅변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는 병들고 불행한 시대다. 진실을 깨달았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앓은뱅이가 일어나며 온갖 격정, 근심, 긴장과 대립이 사라진다. 복음진리를 전하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첫째, 더러운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고 높이던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화제의 주제가 달라지고 예수가 대화의 내용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자 예수를 높인다. 이유는 예수가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줬고 그가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언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선물이다. 언어가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느 말이 진실이고 비진실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언어의 진실은 행위의 진실을 통해 증명된다. 말을 보아 삶을 알고, 행위를 통해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고 높이던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화제의 주제가 달라지고 예수가 대화의 내용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자 예수를 높인다. 이유는 예수가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줬고 그가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언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선물이다. 언어가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느 말이 진실이고 비진실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언어의 진실은 행위의 진실을 통해 증명된다. 말을 보아 삶을 알고, 행위를 통해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혜가 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은혜라는 말은 매력적인 것,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을 뜻한다. 은혜가 되는 말이란 언제나 사랑스럽고 매력 넘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고 매력 넘치는 말이 된다. 내가 던진 말 한 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깊은 고뇌에 빠진다면 그 말은 은혜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다. 교회는 은혜스런 말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 신앙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은혜롭게 하자. 그리

둘째, 은혜가 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은혜라는 말은 매력적인 것,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을 뜻한다. 은혜가 되는 말이란 언제나 사랑스럽고 매력 넘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고 매력 넘치는 말이 된다. 내가 던진 말 한 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깊은 고뇌에 빠진다면 그 말은 은혜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다. 교회는 은혜스런 말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을 격려하는 말, 신앙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은혜롭게 하자. 그리

FFFA, 브라질 당국과 긴밀 협조 반인종차별 캠페인 전개 세계 89개국 45%가 반인종차별법 있으나 효율성 떨어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 체포됐다. 그 이유는 바로 브라질 선수에게 바나나 껍질을 던졌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영국의 한 축구 팬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선수가 운동장에서 넘어지자 경기장 끝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인종 차별적인 비판을 했기에 30일간의 구류에 처해졌다. 이처럼 벌금 아니면 3개월 미만의 구류에 멈추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인종차별 논쟁은 계속되어진다.
 2012년 통계로, 유럽연합 45개국 중 38개 국가가 84%가 인종차별연설반대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더 동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유럽연합은 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혐오성 발언과 인종주의, 인종공포의 다른 표현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다. 스페인 역시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적인 야유나 발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을 당하게 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한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개 국가들 중 9개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국가들 중 19개 국가 중 38%에서도 동 법안이 시행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종, 종교 그리고 국적에 따른 혐오성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48개 국가들 중 12개, 북중남미 10개 국가들 중 3개국이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결론으로, 인종차별은 오래된 만큼이나 그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양상에서는 우

원한 모델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분명하게 인종 차별이라는 인간의 잘못된 관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다.
 녹색 그라운드를 달구며 지구촌을 6월 한 달 동안 축구 경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브라질 월드컵에는 바로 이러한 인종차별에 맞서 한데 뭉치는 결의와 다짐이 이면에 배어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 기도하면서, 한국팀을 비롯해 각 팀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것이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는 자세가 되기를 바란다.

동성애, 미국장로교회 분열 촉진 독신

(1면에서 계속)
 바로 주류기독교교단에 속했던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들이 탈퇴해 새 교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 현상에, 미국장로교 역시 동성애가 확산하며 증가하게 될 것이다. 동 교단에서, 그동안 수백 여개 교회들이 탈

퇴해 아메리카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 복음주의장로교회(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등의 복음주의적인 새 교단을 만들었다.
 이미 성공회에서 탈퇴한 교회들은 나이지리아성공회가 운영하는 복음주의적인 ‘북아메리카성공회’에 가입했고 아메리카복음적 루터교에서 탈퇴한 교회들은 ‘북아메리카루

터교’를 새롭게 세워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장로교 역시 복음주의적 진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적 교회는 증가하지만 주류기독교 교회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낡은 가옥을 개선해줄 때는 도움을 받는 가정들이 돈이든 물자든 노동이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고 동참시킨다. 가난한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기증할 때도 그들이 작은 돈이라도 내고 구입하게 함으로써 그 부모와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직접 자기 집을 고치고, 자기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샀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진행이 필요하다. 함께 시도하고 함께 반성하고 다시 함께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데 거하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해 그들이 다른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넘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화의 의지, 자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 돈이나 의료, 거처를 제공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

결국 선한 의도와 넉넉한 지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사역이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하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그들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

4. 행동하며 배워야 한다.

구제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을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다. 그 일을

축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축” 쉐퍼드대학교 WASC인준

WASC? 미 서부 지역 대학 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서 UCLA, 스탠포드, UC버클리, USC 등 미국 서부 명문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쉐퍼드대학교는 이번 WASC인준(Candidacy)을 통해 이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무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WASC회원 학교로 미국 일반 명문대학으로의 편입·진학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쉐퍼드대학교는 WASC 뿐만 아니라 ACICS 및 AT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동시 통역 강의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1 오르티즈 박사 영성 강의

● 과목명: 목회자 영성과 교회 성장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강의. 제자도, 영성, 교회성장의 핵심 강의
저서: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간 그 심령의 절규>

2 찰스 크래프트 박사 치유 강의

● 과목명: 내적 치유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그는 정통 장로교 목사출신 선교사였으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체험하고, 이후에 영적전쟁, 내적치유, 문화 인류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같은속 영적, 문화적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강력한 영적 분별력과 권세로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두 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

3 다양한 프로그램

● 한국어 신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과정 ● DMin. 집중강의
● MDiv. English Program (목회학 석사 영어과정)

4 다양한 혜택

● 목사 안수, 여목사 안수, 음악목사 안수 ● 미주류 신학 대학들과 학점 교류 ● 미군 군복 가능
● 기타 다양한 장학금 혜택(목회자, 목회자 자녀, 가족, 성직, 근로 장학금 등)

찰스 크래프트 박사

BABS (신학 학사)	127 학점
M.Div (목회학 석사)	97 학점
D.Min (목회학 박사)	42 학점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Ext.8231 (크리스탈 김)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속 좁게 살지 말자!

당대에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토마스 주교가 영성수련을 위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 말씀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때 사탄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도를 방해해하기로 하고 그를 시험에 빠뜨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맨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주교를 유혹했다. 그러나 끄떡도 안했다. 그 다음에는 의심, 공포, 육욕, 물질, 명예 등으로 유혹을 했지만, 기도로 무장된 주교를 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금식기도를 중단하면

대주교가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부하들은 사탄에게 찾아가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한번 해보지' 하더니 토마스 주교에게 접근해 귓속말로 뭔가 한 마디를 하자 토마스 주교의 안색이 금세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금식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산을 아예 내려가 버렸다. 너무도 쉽게 성공하는 모습을 본 부하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주교가 금식기도까지 중단했을까? 그때 사탄이 대답했다. "간단

하지! 다만 나는 한 마디만 했다. 자네 친구 요한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네! 라고 말했다." 주교의 마음에 질투심이 끓어오르게 하는 유혹이 성공한 것이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사도바울을 선언한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또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어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오래 참으 유혹이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선언하더니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선언한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갖들기 쉬운 시기와 질투심을 경고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세속적인 논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사랑과 질투가 서로 반대되는 것임을 말한다.

질투와 시기를 하나로 묶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변역한 성경도 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

와 시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 소유하지 못한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다. 질투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왜 저 친구에게 는 있는데 내게는 없지? 라고 물으며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 둔다. 그래서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여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 동료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저 친구가 잘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불편해 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시기를 받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신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 단지 상대방의 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거나, 일방적인 함정과 소문, 중상과 같은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시기에는 온통 신경과 시선을 상대방 혹은 경쟁자에게 두어서 자기의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썩어할 건설적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함으로써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만다. 내 영혼을 죽이는 질투는 2가지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질투이다. 시기하는 마음은 병든 영혼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인류 최초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시기와 질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시기심에 가득 차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예수를 재판할 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해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막15:10) 했다. 사람의 판단력에 흐리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이다. 그런데 이 질투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가? 바로 사람의 죄성이다. 갈5:20 the works of the

flesh is evident such as jealousy 즉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질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질투한다. 타락한 사람의 자연적 리액션(reaction)이다. 죄성을 가진 사람의 자연적 반응이다. 질투는 우주적 감정의 트라우마다.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 사이에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있다. 단지 어른은 표시 안 나게 절제해 꾸며서 나타낼 뿐이다.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죄성 그 질투심이 없는가? 당신은 그 질투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는가?

그런데 질투는 내가 의식적으로 결심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다. '질투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 내 가슴속에서.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질투 많이 하는 사람치고 마음 넓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굳게 다짐해야 한다. 속 좁게 살지 말자! 속 좁게 살지 말자!

푸 / 른 / 초 / 장

신원규 목사
(삼성장로교회)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해 있으면 빨리 회복되길 원하듯이 회복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받을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원하시며 본문을 통해서 강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3년6개월 긴 세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비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료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은 3년6개월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 문을 닫으셨을까요? 비를 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영적 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후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후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궁궐 안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남편 아합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두 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을 따른 그 땅 이스라엘은 사람의 인육을 먹음 만큼 굶주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배와 기도는 있으나 이세벨과 같은 우상들을 앞에 두고

겉절이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당시 주변정세는 이세벨이 3년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매일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아합과 오바다가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따로 따로 물을 찾아 나서자고 제한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오바다를 만나게 합니다. 아합이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자 850명 거짓선

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 맞서 대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핍절 하고 황폐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게 됩니다.

늦출 수 없는 회복 (야고보서 5: 17-18)

첫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이나? 세상의 우상의 길이나? 기록에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오른발은 하나님, 왼족 발은 우상에 발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오른족의 상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인 오른쪽으로 발을 옮기는 결단을 우리

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여호와와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축으로 생명이 있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써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할 것 하고 통곡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짓선지자들 850명이 울부짖었으나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두 사이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엘리, 한나, 사무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으나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한나는 자식

이 없는 고통과 억울함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술에 취한 여인으로 치부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영적인 음성 듣지 못하고 술취한 여인으로 물어버리고 엘리는 한나를 향해 포도주 그만 먹으라, 술에서 깨어나라 명합니다.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의 억울함을 애통하며 하나님의 인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이 시대 종종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의 개인의 고난은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은 닫은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엘리와 한나의 삶을 통해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늦출 수 없는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입재 안에서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있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곧 구원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엘리 같은 육체의 삶은 회복을 늦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므로 고난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끈고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입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새로운 변화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삶이 회복되면 육적인 삶의 문제도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늦출 수 없는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땅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zusa Pacific University

2014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및 프로그램 설명회

학교소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교로서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로부터 미국의 최고학교 중 하나로, The Princeton Review 로부터는 미서부의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사 대학교는 WASC 와 ATS 에서의 정회원입니다.

아시안 프로그램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수강)

아시안 프로그램은 아주사 신학대학원의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로 수업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곳곳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헌신할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융합하여 학문적인 우수성과 실제적인 사역의 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교수진, 그리고 아주사 대학의 자랑인 각 클래스당 소규모의 정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Master Degree Program (석사과정)
Master of Arts in Pastor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 (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설명회

- 일시: 2014년 7월 14일 오후 6시
- 장소: 아주사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3580 Wilshire Blvd. Ste. 200 Los Angeles, CA 90010
(Ardmore Avenue쪽으로 오셔서 Paramount Plaza visitor parking 을 하시던 Validation 해 드립니다.)

- 2014년 가을학기로 등록하는 첫 3명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20% 를 장학금으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 참석하실 분은 전화 (626) 857-2200 이나 email: aher@apu.edu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ZUSA PACIFIC UNIVERSITY

losangeles@apu.edu

www.apu.edu



현대인들이 사는 또 다른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다. 그런데 사이버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고 사이버 폭력이 존재한다.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폭력은 인터넷의 특성들 때문에 그 정도와 피해가 폭이 넓고 또한 강도가 매우 심하다. 인터넷의 독특한 특징들은 1)익명성 2)접근의 용이함 3)보복의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음 4)폭력을 보고도 방관자하는 사람들 5)그리고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강도가 갈수록 더 증폭된다.



인터넷에는 폭력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친절함과 배려 대신에 무뎠음이 난무한다. 얼굴과 얼굴을

터넷에 만연한 폭력적 언어와 폭력적 자료의 부정적 영향을 고발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가 극심하다. 6학년부터 10학년사이의 1만5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24%의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8%는 매주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최대의 88%의 Social Media에서 기분이 상하는 힘들고 거친 일을 당했고 그 중에서 15%는 자신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심각한 공격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을 혐오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자기 고독으로 빠진다.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자신이 다른 사람 행세하는 것,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트리는 것, 개인을 소외시킴, 개인 정보를 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는 사기, 불쾌하거나 무례한 텍스트를 보내는 것, 본인의 허락이 없이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범주가 해당이 된다. 사이버 폭력은 IT산업이 발달한 한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각 나라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들을 서둘러 제정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이버 폭력이 신앙사이트에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실명으로 만든 아이디가 없으면 댓글이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라앉지 않는다. 대화의 현상이 아니라 싸움과 인신공격의 현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 시대에는 사이버 세상이나 인터넷이 존재

때문에 가해자가 되어도 정당화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려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가치나 자아상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사이버 폭력은 이러한 자신의 상처를 죄악된 악한 방법으로 보상하려는 심리이다. 이것은 자신을 향하면 스스로 상해하거나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다. 한편 바깥으로 향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살인까지 가게 된다. 이 사이에 사이버 폭력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이버불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로마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으시는 모습을 연상케한다(마27장). 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채찍질한다.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힌다. 왕이심을 조롱하는 것이다.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리우고, 머리에는 왕관대신에 가시관을 씌운다. 완전히 모독하는 모습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이버 언어 폭력의 남무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물론 다른 폭력이나 가해와 달리 사이버 폭력은 본인이 원하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나 이메일을 바꾸든지, 아니면 필터들을 통해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혹은 글들이 비록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불편한 기사나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전세계적으로 폭로된다. 그리고 한번 올린 것이지나 모함도 사이버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힘없는 우리는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지난 2008년부터는 비율이 더 높아졌지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93%가 인터넷 온라인에 산다. SNS의 90% 이상이 십대들이다. 예민한 나이에 당하는 사이버 폭력이나 고립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 이들은 극한 사이버 폭력이나 공격에 극단의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6년도의 미국의 Megan Meier 자살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심대가 자살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건들도 사이버상의 인신공격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나이와 지역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사이버 폭력적인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범죄방지처에서는 사이버불리의 형태의 다양성을 지적했다. 사이버불리는 인터넷에서

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부당한 괴롭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다. 그리고 사단은 사이버불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괴롭히도록 부추기는 존재이다. 사단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렘5:18).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넣으려고 한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거짓으로 참조하는 자이다. 사이버 폭력은 사단의 특성들을 재현하는 것과 같다.

사이버 폭력은 어느 형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창1:26-27). 따라서 사이버 폭력은 학대와 폭력의 한 형태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한면으로만 파악하거나 진단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 52%가 본인이나 사이버 폭력을 가한 가해자이지만 자신들이 또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문제를 확대시켜가는 것이다.

또한 좁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자신들을 모두 피해자의식으로 빠져들게 된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 멍달아서 같이 공격한다고 한다. 인터넷 게임 중에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면 공격당하는 사람을 함께 공격하는 성향이 표출된다. 나도 공격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이기

라고 놀린다.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예수님을 훼방한다. 이런 군중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다(눅23:32). 용서의 능력은 매우 힘겨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밟는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어른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한 공격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라고 한다. 무시하고 그래도 안되면 단절한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피해자가 반응할 때에 더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의 만족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면 공격의 대상으로 벗어날 수 있다(잠26:4).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이버 폭력의 공격으로 면연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폭력은 만연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마지막 때의 징조처럼 '사나운 세대'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더 순결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려면 조금 더 부끄러워질까?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isp0316@gmail.com

Q: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현재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보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개척 목회자의 생활 지침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교회 개척은 3교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대형교회 시대의 작은 교회"라는 책에서 에드가 존스 목사는 처음 개척목회를 하던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그 지역감독은 내게 이렇게 충고했다. '그저 교회 문이나 열어 놓으시오' 나는 한순간 낙심의 유혹을 받았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전망은 매우 흐렸다. 최악의 상태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나의 가장 내밀한 슬픔과 패배감을 담고 있었다. 지난 주 예배에 겨우 다섯 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즉시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다. 아버지는 먼저 나의 곤경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셨고 곧 이어 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에 대해 질문하거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충고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원하는 개척교회 목

일과 휴식의 조화...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도 중요

사의 생활지침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1) 꾸준히 새벽기도를 하라. 새벽기도는 영감과 영력의 보고입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목회자는 매일 꾸준히 새벽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것이 영성개발의 최상의 방안입니다. 2) 새벽기도 후에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말고 책을 읽으라. 새벽시간을 잡으면 하루가 잡힙니다. 새벽기도후의 시간을 독서와 성경연구시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자꾸 피곤하다고 잠을 자면 습관이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한잔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 목회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Leaders are Reader, 리더는 책을 읽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성경을 통독하고 5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3) 규칙적인 출근시간을 정하라.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직장입니다. 공과사의 구분 없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출퇴근하여 시간을 정해 성실하게 근무하라. 4) 오직 교회 안 개구리가 되라. 최소한 개척 3년 동안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라. 5)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단련된 체력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목회의 긴장을 풀고 생각을 여유있게 만듭니다. 단 목회에 지장을 줄 만큼 운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6)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라. 휴식의 의미는 정지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한 밀거름입니다. 따라서 잘 쉬는 것도 훌륭한 목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의 습관 그리고 화목한 가정으로부터 오는 활력소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좌절과 절망감을 극복하라. 개척목회를 하다보면 외롭고 좌절감이 손님처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역에 대한 절망감이 찾아올 때는 일명 엘리야의 떡자 기법-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기도하자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을 받은 분으로 영어권과(EM)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
2.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사(M. Div) 혹은 신학석사(Th. M)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분
3. 목회경력(담임목사 혹은 전임 부목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4.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교회가 속한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5. 미국 거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명) 5. 설교 테이프, CD, 혹은 DVD (2개) 6. 본인 및 가족 사진

● **제출서류 마감일:** 2014년 8월31일 우체국 소인 까지

● **제출처:** 임마누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 **문 의:** 청빙위원장 이종우 장로 (408) 826-1308, 이메일 pastor@kepc.org

- **기 타:** 1.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263.5100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단의 바가라(BAGARA)



수단은 “바가르”(bagar)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소”를 의미하며 수단과 주변 국가들에서 소를 치는 다양한 아랍 부족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바가라 부족들은 수단의 다르푸르, 북부 코르도판,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평야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소 방목에서 아주 적합하며, 비는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 우기에만 내린다.

이들의 기원은 모하메드 이전까지 올라간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인 헤자즈의 주헤이나족(Juhayna)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여러 세기 동안 중앙아프리카 북부의 평야 전역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부족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기도 했지만 순수한 바가라 지역은 아니다.

삶의 모습
바가라족 대부분은 목자들로 약간의 양과 염소를 기르기도 하지만 주로 소를 키우며 수송용으로 낙타도 기른다. 이들은 “푸르간”(furgan)이라는 캠프구조로 거주하는데, 구성원들은 대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계에 속한다. 동형의 텐트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들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구조로 돼있다. 텐트들은 원형으로 배치되며 그 안으로 밤에 가족들을 모아놓는다.

농촌공동체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가옥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 초가지붕을 얹는다.

가족 축사는 마을 안쪽에 짓는다. 목초지는 대개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농지는 개인 소유이다.

바가라족은 여자들이 가계를 꾸리기 위해 소 우유를 짜고 우유나 유제품을 팔아 현금을 벌어들인다. 기혼여성들은 가재도구와 텐트를 소유하고 있다. 남자들은 주로 가족을 돌보며 또 곡물을 심고 수확한다.

결혼은 종종 일부다처제가 된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얻게 되면 한 명은 목초지의 캠프에서, 다른 한 사람은 농지가 있는 마을에서 살게 된다. 사촌간의 결혼이 선호된다. “신부값”을 지불하는데 이 돈은 가재도구 구입과 신부의 집에서 열게 될 결혼 음식을 장만하는데 쓴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부부는 시부모 근처에서 살며, 나중에 남편이 정하는 장소로 이주한다. 이때 신랑의 가족들은 또 한번의 잔치를 연다.

바가라 사회는 부계혈통으로 각 캠프는 “샤이크”(shaykh)라는 남자 지도자에 의해 통솔되는데, 이 직위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지만 캠프의 성인 남자가 모두 이 직위에 승에 동의해야 한다. 샤이크는 캠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서 결정을 내리는 남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하지만 지혜와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신앙
바가라 부족은 거의 100% 무슬림이다. 이 부족 중 8개가 수니파(Sunnis)이며, 나머지는 말리크(Malikite) 종파에 속한다. 그들 모두 “이슬람의 5가지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므로 많은 남자와 여자들도 일부 메카로 순례여행을 떠날 수 있다. 다양한 종교적 축제를

를 열며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통과의례들도 중요시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바가라 부족에게는 극히 적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일부가 바가리어로 번역됐고 기독교방송도 일부 그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에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극소수만 기독교로 개종했다. 게다가 유목적인 생활양식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바가라 부족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전혀 없다. 자질 있는 사역자들이 이 무슬림들 가운데 거주하며 사역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도 와 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가족이 거듭난 기독교인 결혼하면 행복”

미국인들은 직계 가족이 무신론자보다 기독교인과 결혼할 때 더 행복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는 직계 가족이 ‘거듭난 기독교인(Born-again christian)’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거듭난 기독교인’은 신앙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직계 가족이 무신론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4%에 그쳤고 49%는 불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파의 57%, 진보파의 16%가 직계 가족이 ‘거듭난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퓨리서치센터는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직계 가족이 거듭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답이 67%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불행할 것이라는 응답 26%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대영교회 지도자 ‘미디어 금식’ 운동

브라질 대형 교회 지도자 ‘미디어 금식’ 운동 기사의 사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사는 에두아르두 소아레스(30)는 지난 12일 열린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개막전을 보지 않았다. 그는 최근 캐나다 지역지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하지 않겠다”며 “월드컵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축구광인 그가 월드컵 기간 동안 방송과 답을 끊었다고 결심한 이유는 ‘40일 미디어 금식’ 캠페인 때문



이다.

브라질 오순절교단 ‘하나님의 나라 세계교회(UCKG)’ 설립자 에디르 마세두(69) 목사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를 ‘40일 미디어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기독교인에게 TV, 영화, 라디오 등 모든 미디어 접촉을 금하라고 제안했다. ‘40일 미디어 금식’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낸 성경 내용에서 착안했다. 마세두 목사는 “미디어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목상하는데 집중하자”고 말했다. UCKG는 이번 캠페인에 자국 교인 800만명과 미국 영국 등 세계 UCKG 교인 400만여명이 동참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브라질 성서공회는 세계 축구팬들에게 성경 400만권을 배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라마단’ 준비 분주



세계 최대 이슬람교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신자들이 한 달 동안 금식과 금욕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슬람 성월(聖月)인 ‘라마단’ 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0일 자카르타 주 정부가 라마단이 시작되는 28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446개 유흥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고 915개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나이트클럽과 안마업소, 사우나 등은 영업이 중지되고 가라오케와 생음악 주점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아리 부디만 자카르타 관광청장은 “이 조치는 2004년 제정된 시 관광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히 단속, 위반하는 업소는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한 지역인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 주에서는 종교경찰이 몸매가 드러나는 꼭 끼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는 등 샤리아(이슬람 율법) 단속 강화에 나섰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9번째 달로 이 기간에 노약자나 환자, 임신부 등을 제외한 이슬람 신자들은 낮에는 음

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한다. 음식과 돈을 아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의미도 있다. 라마단 기간에는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도 금식하는 이슬람 신자들을 고려해 근무시간 단축, 육체노동 축소,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조치를 하기도 한다.

올해는 특히 라마단 기간인 다음 달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 이권이 이슬람 신자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물 울라마(NU)와 무하마디야 지도부는 회원들에게 라마단과 대통령선거 기간에 마음을 열고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 이견을 포용하고 화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방언전선(FPI) 등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술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습격하고 유해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사태도 자주 발생해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고너는 피습을 당한 상태에서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였다고 했지만 현장 감식에선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쥘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한 이번 수사에는 FBI(연방수사국)도 참여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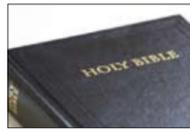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왜고너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번째 버스 기사 생활을 하는 왜고너는 사건 당시 회사 정계위에 회부된 상태였고, 10만달러의 미납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고너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 말고도 주택 10여 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왜고너는 경찰 발표를 듣고 집으로 자신을 찾아온 기사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왜고너가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세상을 농락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경이 총알 막았다?” ...자작극

대한성서공회, ‘성경’ 쿠바에 1만부 기증

평소 셔츠 주머니에 넣어 두고 읽는 성경책 덕분에 가슴에 총격을 받고도 기적으로 살아남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오하이오주 중년 남성의 피격사건이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하이오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24일 데이튼시 도로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불량배 총격사건 조사 결과 피해 신고를 한 리키 왜고너(49)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버스 운전사로 일하는 왜고너는 사건 당일 오전 5시께 고장 난 버스를 길가에 세우고 살펴보다 흑인 청소년 3명이 다가와 자신에게 총 세 발을 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괴한들은 한 발은 다리에, 나머지 두 발은 가슴에 쏘지만 늘 가슴 속에 넣고 다니던 신약 성서가 총알을 막아내 목숨을 건졌다는 게 왜고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권총 탄도 실험에선 총알은 어떤 각도에서 쏘도 성경책을 쉽게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다는 왜고너의 상처 주변에는 자해 때 생기는 주저흔이 발견됐다. 왜

대한성서공회,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쿠바에 1만부 기증 기사의 사진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17일 경기도 용인 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쿠바에 전달할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1만부 기증식을 가졌다. 성서공회는 “성경은 배편으로 8월2일쯤 쿠바 아바나 항구를 통해 쿠바성서위원회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1993년 종교 규제가 풀린 이후 기독교인이 3배 이상 성장해 현재 1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이 턱없이 모자라 성도 1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갖고 있다.

쿠바에는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대한성서공회처럼 해외의 성서공회가 성경을 공급하고 있다. 쿠바교회협의회는 향후 성경 100만부가 필요하며 최근 한국교회에 성경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성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기증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 Phnom Penh, Cambodia
• Oct 27-31(10월 27일-31일)
-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7)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교회 개혁을 위한 저서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생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의 개혁이었다. 즉 화란 국가교회인 갱신교회(Hervormde Kerk)가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국립대학의 신학부에 자유주의 신학을 허

ginsel Der Kerk, 1867)는 카이퍼의 목회 초년에 발표한 소책자이다. 이 소책자를 전후해서 "우트레흐트 교회 시절"(Kerkvisitatie te Utrecht 1868), "갱신교회의 예배, 예배서의 구조"(De Eeredienst

에 반해서 16세기 요한 칼빈의 신앙과 신앙을 지키고 돌트 규정을 지켜 나가려는 사람들을 정통주의로 분류했다.

그 외에도 "교회 개혁을 위한 소책자"(Tractaat van de Reformatie

신문의 편집장의 체험을 살리면서 세 부분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풀어 놓았다.

첫째로, 카이퍼는 자서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가 교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종교 개혁자 요한 라스코(Lasko)를 연구하고, 레드클리프가의 상속인(the Her of Redclyffe)을 읽고, 베이스트교회에 개혁주의 성도들과 만남이라고 했다.

둘째는, 이 책에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카이퍼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제시했다. 즉 국가 교회는 개혁주의적, 민주주의적, 자율적, 그리고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교회에는 반드시 세

교회는 개혁주의적, 민주주의적, 자율 자립적이어야 균형 잡힌 목회는 말씀, 예배, 선교와 박애의 목회

용함으로써 세속화 되었다.

과거 돌트총회에서 채용했던 돌트신경을 무력화시키고 있을 때 카이퍼는 다시 한 번 16세기 칼빈의 신학을 회복하면서도 다원화된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교회개혁에 대한 카이퍼의 저서들은 대개 그때그때의 상황에 반응하면서 내어놓은 소책자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육신, 교회의 삶의 원리"(De Menschwording Gods Het Levenbe-

der Hervormde Kerk en De Samenstelling Van Haar Kerkboek, 1869)가 있고 카이퍼가 우트레흐트를 떠나 암스테르담교회로 가면서 시행한 강연 "보수주의와 정통주의"(Conservatisme en Orthodoxie, 1870)란 강연을 했고 이것이 소책자로 발행되었다. 이때 보수주의란 말은 오늘날 한국에서 쓰는 좋은 말이 아니었다.

화란 갱신교회가 자유주의 신앙노선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자기 변화를 할 줄 모르고 기독교를 사수하려는 것을 보수주의로 칭했다. 이

der Kerk, 1886)는 루터의 종교 개혁의 뜻을 설명하고 오늘의 교회가 걸어 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했다. 또한 카이퍼는 화란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 van Nedesland)를 창설한 후 그간 고통과 슬픔을 1890년에 "Separatie en Doleantie", 즉 "분열과 슬픔"이란 책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카이퍼의 소책자 중에는 "확신컨대"(Confidentie, 1973)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카이퍼는 교회개혁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목회 생활과

가지가 균형 잡힌 목회 즉 말씀의 목회, 예배의 목회, 선교와 박애의 목회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카이퍼의 책들은 하도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책을 저술했기에 여기서 모두 논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저술가로서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 외에도 카이퍼는 그의 정치적 스승인 흐른 반 프린스터와 수많은 편지를 교환했으며 그것은 카이퍼 사후에 방대한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2013년 성향리에 진행했던 선교사자녀 캠프

'2014 MK CAMP' ...미주교회 협력필요

예장합동 GMS 주최, 7월 14-25일 전남 신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에서는 7월 14(월)부터 25(일)까지 전남 신안에 있는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에서 '2014 선교사자녀 수련회'를 개최한다.

본 수련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환경을 통해 새로운 감격과 소명의 도전을 갖게 할 계획이다. 이 수련회 강사로는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자녀위원장), 김영삼 목사(금광교회),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정명철 목사(대흥교회), 홍석기 목사(상리교회) 등이 강사로 서며 참석자들은 간증, 런닝맨, 해수욕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선배 MK들이 스템으로 참여, 참석한 학생들을 돕게 된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GMS는 "선교사 자녀 중에 우울증과 고독, 상담자 부재, 학업 중 안정적 거주지 부재들의 난관으로 매우 힘든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질병으로 사망하는 자녀들이 올해

2명이나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의 영성회복과 재충전, 비전 제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GMS는 수련회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사역국장 민병윤 목사는 "MK는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귀한 아이들이며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냥 정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선교의 대단히 심각한 후퇴인 셈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들의 정체성과 정체적 안정, 사역에 대한 감사의 확신, 공동체 의식이 더욱 확립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이주경험과 다문화권 경험이 많은 미주 교회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세한 것은 http://gms.kr/bbs/board.php?bo_table=720&wr_id=35 에서 관련 글을 볼 수 있으며 02-568-9776, 010-6421-6289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칼럼 음악목회 (30)

또 하나의 지휘자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 소장



음악목회에 있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나 경배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음향과 영상을 총괄하는 미디어 디렉터입니다. 요즘 음향처럼 CCM을 도입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당의 어쿠스틱보다는 음향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 예배당을 가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상장비를 갖추고 대형 화면에 예배실황과 다양한 영상물을 방영하곤 합니다. 이 또한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음향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그리고 경배찬양팀과 밴드가 훌륭하다고 해도 음향기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될 경우, 음향담당자에 의해 아주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훌륭한 지휘자에 의해 지도 받은 찬양대가 아주 훌륭한 찬양을 연주한다고 해도 만일 음향담당자가 그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음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은 지휘자의 음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휘자인 음향담당자의 음악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찬양대를 지휘해왔기 때문에 많은 경

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찬양곡이 다른 곡에 비해 다이내믹의 변화가 많은 곡이었습니다. 음악 표현상 베토벤이 사용했던 것처럼 FFF 포르테시시모 즉 아주 아주 세게를 표현하다가 중간에 PPP 피아니시시모 그러니까 아주 아주 여리게를 표현해야 하는 곡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러한 음악적인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연습실에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배시간에 그 찬양을 연주할 때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음향담당자가 FFF는 너무 소리가 세다고 볼륨을 낮게 조정하고 PPP는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볼륨을 올려 크게 조정했기 때문이었

습니다. 그날 그 음악은 한 사람 음향담당자에 의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향기기가 FFF와 PPP를 정확하게 흡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비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는 적어도 교회 음향을 담당할 사람이 음악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의 크기에 따라 찬양대 전체 소리를 골고루 흡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찬양대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뒤에 서 있는 사람의 거리가 멀어 소리를 골고루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마이크의 성질에 따라 넓게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까지도 골고루 흡수하는 마이크도 있지만 어떤 마이크는 가까이에서 소리 내는 한 두 사람 소리만 크게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휘자가 수고하여 찬양대의 톤을 만들기 위해 블렌딩(Blending)을 잘 시켜놓고 파트별로 밸런스(Balance)까지 잘 잡아두었는데 마이

크 때문에 개개인 소리가 튀어나와 음악적으로 블렌딩도 깨어지고 파트별 균형도 깨어졌다면 과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음향담당자의 책임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합창음악이나 오케스트라 음악은 사람이나 악기를 개별적으로 마이크 하기보다는 전체 음악을 픽업(Pick up)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음악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잘 전달될 것입니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경우 다양하고 많은 악기가 동시에 연주할 때, 개별적인 악기의 소리를 픽업하게 되면 전체적인 블렌딩과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악기 몇 개 소리만 크게 전달하게 되면 비음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음향담당자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배찬양팀의 경우 대체로 찬송팀 모두가 개인 마이크를 하나씩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 음악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적으로 통일성이 없

고 소리의 개성이 강한 분들 각자가 내는 소리를 함께 섞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배찬양팀의 톤이 거칠고 음정도 서로 잘 안 맞고 바이브레이션도 많이 블렌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음색이 다양하여 찬양곡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의 특징과 색채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리더와 소리 잘 내는 인도자 몇 사람의 소리를 더욱 크게 부각시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음악에 있어 음향을 담당한다는 것은 교회음악의 모든 표현과 전달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휘자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지휘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음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람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부품(molecule, 분자) 수는 물과 무기물을 제외한다 해도 약 1조 개나 된다. 이 수는 지름이 20um인 사람의 보통 세포 한 개에 들어 있는 부품 수로 약 600만 개의 부품으로 제작된 보잉747 비행기 156,000대의 부품 수에 해당하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세포가 무기물에서 저절로 조립된 것일까, 아니면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창조과학 칼럼 (193)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 세포는 창조 기적의 산물

노산으로만 구성된 단백질이 모두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0)다. 이 외에도 지구 초기부터 풍부하게 존재했던 산소를 제외한 점과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실험 장치를 사용한 점도 밀러의 실험결과가 자연발생을 지

도 D-형으로만 수억 개 이상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밀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생명체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부품들의 조립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에 배치된다는 상상은 지나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포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과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과학자도 세포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만든다 해도 조립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생명체 창조과정은 과학적 논리에 잘 어울리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세포는 전능하신 창조자의 작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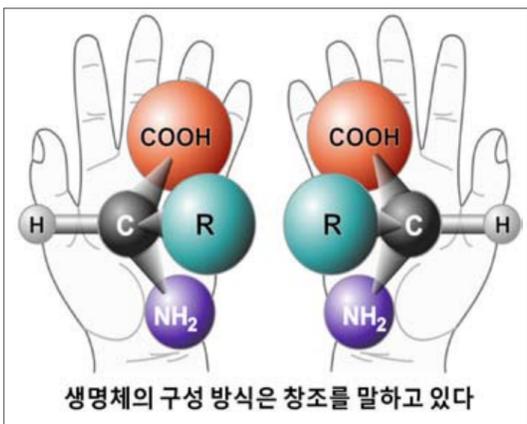
DNA가 생명인가?

DNA 이중 나선구조를 확인하여 노벨상을 받았던 왓슨(James Watson, 1928-)은 DNA를 생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생명을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생물학의 영역은 관찰 가능한 영역만을 다룰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생명체인 세포 속 어디

1950년대 초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밀러는 수소(H2), 메탄(CH4), 암모니아(NH3), 그리고 수증기(H2O) 등 4가지의 가스만을 선택하여 주입한 실험관에 자연스러운 번갯불 대신 전기방전을 시켜 생명체의 주요 부품인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실험결과는 진화론이 행했던 유일한 성공적인 실험으로 여겨졌다. 생명체의 구성분인 아미노산을 얻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강화하는데 엄청난

세포는 자연 화학 반응과 물리적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 DNA는 생명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생명체의 설명서일 뿐

난 과정을 미쳤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학진화의 증거로 이 실험내용이 많은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진화론자들도 오래 전부터 생명 발생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 이미 버려진 이론이다.



생명체의 구성 방식은 창조를 말하고 있다

진화론자인 다이스(Freeman Dyson)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원상태 대기 조건에서 아미노산으로 가득 찬 연못으로 대변되는 그럴듯한 밀러의 그림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그럴듯한 그림이 등장했다. 이 새 그림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뜨거운 구멍에서 생명이 생겨난다고 한다.”

생명체의 자연 발생을 설명하려는 밀러의 실험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밀러의 실험결과로 생성된 아미노산들은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생명체 단백질들은 L-형의 아미노산만 필요한데 밀러가 만든 아미노산들은 L-형과 D-형이 50%씩 섞여 있는 라세미체였기 때문이다(그림). 생명체들은 L-형의 아미노산만 단백질 합성에 사용하는데 반해 화학합성 결과는 언제나 L-형과 D-형이 50%씩 만들어진다. 이런 원료를 가지고 L-형의 아미

지하는 실험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이유들이다. 산소는 화학합성에 치명적이며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생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밀러 실험의 문제점은 밀러가 죽었던 날 로이터 신문기사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밀러와 주류 과학자들은 생명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당돌함이었다. 이것이 그 분야의 첫 번째 성공이었다.” L-형의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는 단백질뿐 아니라 DNA의 구성요소인 5탄당 2-deoxyribose

모두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0)지만 무한히 양보를 해서 모두 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부품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생명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세포로 조립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가장 확실한 물질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모든 시스템은 무질서해지지만 저절로는 질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람 세포의 경우 1조 개가 넘는 부품들이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도 이 부품들을 20um의 작은 공간에 모을 능력이 없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저절로 그 작은 공간에 적재적소

에 생명이 있는가? 세포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DNA도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DNA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생명을 관찰해본 과학자는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논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답을 하고 싶어 한다.

DNA는 생명체의 청사진도 아니다. DNA가 생명체의 청사진이 되려면 가장 먼저 DNA가 존재하고 이 DNA 정보에 따라 생명체가 조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체는 이런 방법으로 조립된 것이 아니므로 DNA는 생명체의 청사진도 아니다. DNA는 이것을 읽어주는 장치인 단백질이 있어야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DNA는 단지 생명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생명체의 설명서일 뿐이다. 물론 단백질도 생명이 아니며 생명의 근원도 아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창조자 하나님에게 있다(시36:9)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다(요14:6). 또 이 창조자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한다(레17:11, 14).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성서교회)

임마누엘이 이루어낸 믿음의 정금 요셉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창 50:20).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특하신 사랑을 받은 자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험난한 환경 바로 뒤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회들로 확실하게 자리를 깔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멋진 동행의 드라마 한 편입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씨줄날줄 삼아 너무도 아롱진 채색 비단옷을 짜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꼭 맞는 멋진 옷을 만들어 내려준 준비부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완벽한 작업을 거칩니다. 기본 재료의 정리에서 실을 뽑아내 물들이고 영롱한 옷감을 짜내어 몸에 딱 맞도록 옷에 맞추어 만드십니다. 멋지면서도 딱 어울리는 내 옷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손수 기막히게 감독해 이루어내시는 성령님의 주재하심, 지혜에 뭐라고 토크할 수 있을까요!

인간 아버지를 의지하던 통로를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 없도록 썩 세워 버리십니다. 숨통을 조여오듯 물러오는 기막힌 처지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들어온 야곱의 과란만장한 인생 구비구비에서 함께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고난 가운데 요셉의 하나님으로 진한 동행이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요셉이 만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 공황이 넘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전심으로 매달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대신 그의 아버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행동하도록 살뜰히 보살펴주시기를 만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며 요셉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심지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갑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니 애굽의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 그 집의 소유를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 산 넘어 산-아직은 더 하나님을 경험하자면 믿음이 설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라 단호히 물리치나 이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 어디에서도 성실하니 사랑을 받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주고 자신을 기억해줄 부탁하나 꿈 해몽으로 위안은 받았지만 은혜를 까맣게 잊은 바람에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이 수년 흘러갑니다. 요셉은 끔찍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긴 흉년에 대비하여 애굽 총리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 출세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인내하는 그릇, 다각적으로 인격이 다져지고 무르익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잊었는가? 단말에, 포기, 원망에 정말 마음을 믿음에 붙어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모든 마음의 요란한 폭풍, 바람, 불이 지나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가 무르익는 절정에 기성전외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이들에게만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당연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이 땅의 심장 역할을 해내려니 고난은 불가피하나 종래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 안에 배어 나오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하나되는 영화를 상으로 받으니 고진감래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신 형상회복이 이루어짐이 믿음으로 동행한 요셉의 길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이 보장된 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려는 간절한 요셉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심장에 굳건히 뿌리내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 ①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약 편, 신약 편
- ③ 철심이레
-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 ⑥ 다니엘
- ⑦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1. 하나님의 구원계획 360면 | 13,000원

2. 하나님의 구원계획 396면 | 13,000원

3. 철심이레 160면 | 8,000원

4. 지금이 시대의 말씀 412면 | 14,000원

5.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152면 | 10,000원

6. 다니엘 224면 | 9,000원

7. 요한계시록 256면 | 12,000원

8. 요한계시록 236면 | 12,000원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강사: 라흥채 목사
- 장소: 뉴욕 제자들과교회 교육관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라흥채 목사



라흥채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2. 3-1968. 2)
미국 '테네시'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휴스턴 신학교(1986. 7)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D.D)(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교회 교역(1996. 9)
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2014. 현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심판의 때가 곧 도둑 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 주소 :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11363

구입처 뉴욕제자들과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목회서신

미스코리아의 성형수술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의...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탤런트가 찾아왔습니다.

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완벽하데 왜 수술을 하려하십니까?"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 탤런트에게 "수술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배우들은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맥스웰 멀즈라는 성형외과의사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얼굴을 고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더라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보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곧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네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주부가 음식 한 가지를 만들어 놓아도,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맛없게 먹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선교지향적... 남북통일 기도회 준비

세기총 2대 회장 장석진 목사 취임감사예배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장석진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는 18일 오전 8시 JJ그랜드호텔에서 제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석진 대표회장은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에 본 총회가 발족한 목적과 의도대로 선교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가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조국의 당면과제인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날 예배 순서는 한기형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환영사에 이어 시작, 김병곤 목사(미주성

결교 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예다미합창단이 찬양을,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가 '거룩한 팔'(시52:9-10)이라는 제목의 설교, 한영훈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와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회장)가 축사했다.

이 날 예배 순서는 한기형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환영사에 이어 시작, 김병곤 목사(미주성결교 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예다미합창단이 찬양을,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가 '거룩한 팔'(시52:9-10)이라는 제목의 설교, 한영훈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와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회장)가 축사했다.

(박준호 기자)



제 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주제 주예수교회 주최, 제 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제 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란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주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인 최형근 교수, 인도네시아장로교신학대학 학장이며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WMF) 공동의장인 김중국 선교사, 주예수교회 담임이며 한인세계선교회의(KWMC) 공동의장인 배현찬 목사와 주예수교회 장로이며 단기 및 전인 선교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노승환 장로가 주강사로 참여해 중, 동부 지역에서 온 40여 명의 목사,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퍼져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

해 심도 있는 연구와 목회의 실제적 적용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최형근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체에 관한 연구"라는 2회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해 언급하며,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그리스도인들)를 세상에 파송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교회의 존재 목적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말하면서,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선교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고 구속과 화해를 이루는 변화의 대리인임"을 역설했다.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 김중국 선교사는 지난 30년간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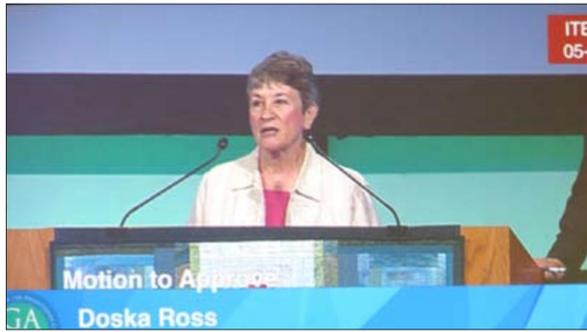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역사 배경과 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통적 교회에서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선교와 달리,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 교육, 교제, 봉사사역과 세계를 향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찬 목사는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타인종에 대한 편견의식을 버리고 지역 주류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건강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예수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목회적 입장에서 간증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도전

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노승환 장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철학이 교회공동체의 사명과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결실로 나타나는지 간증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 현상을 제시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주예수교회가 실시하는 먼로공원 노숙자 급식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Renew Crew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의 현장과 CARITAS 본부를 견학했다.

마지막 날에는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선교적 교회의 철학과 현장 체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휴식을 가졌다고 치하했다.

제2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2016년 5월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PCUSA 제221차 총회에서 남가주와 하와이 시노드 총무인 도스카 로스가 한미노회의 해산안을 상정하는 모습

PCUSA 한미노회 결국 해산

제221차 디트로이트총회서 찬성 529, 반대 44로

제221차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결혼안이 통과된 가운데 남가주 한미노회가 찬성 529, 반대 44로

반대 44의 압도적 표차로 해산결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한미노회는 결국 해체됐다.

지난 3월 29일 성마리아교회에서 열렸던 시노드 총회에서 상정된 한미노회 해산안에 대해 한미노회역시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산안 인준을 2년간 보류하는 대체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대체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돼 결국 30년간 지속돼왔던 한미노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남가주와 하와이 시노드 총무인 도스카 로스는 지난 15년간 한미노회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안을 상정한다면서, "한인들은 열정적이고 활발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역노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대회에 앞서 드린예배에 방지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

교회일보 주최, 최우수상

교회일보(발행인 우병만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가족 건강을 위한 무료 볼링대회가 지난 24일 화이트스톤 볼링장에서 열렸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설

교 방지각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로 진행됐다. 우병만 목사는 "목회자들의 친선과 건강을 위한 갑자기 계획돼 열게 됐다"며,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방지각 목사는 시편 133편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형제의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방목사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화목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형제와의 연합이 복받는 통로다. 하나되는 연합은 먼저 교역자들 간에 이뤄져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자"고 말했다.

대회진행은 김연국 목사가 맡아 총 3개팀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기본점수, 핸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고점수자, 부부특별상, 리액션상, 경품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도 선물이 증정됐다. 총 3개팀을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졸업식에서 제임스송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제복음주의협회 제52차 목사 안수식

개교28주년 미드웨스트대학교 졸업식 및 여름음악제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목사후보자 교육과 제52차 목사 안수식이 6월 11-14일 IEA본부(세인트루이스)에서 실시됐다.

세계선교, 교육, 협력사역을 목적으로 1983년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복음주의협회는 미연방정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60여 개국 선교사역과 산하교육기관으로 미드웨스트대학교, 글로벌게이트웨이 대학교, 글로벌리더십인스티튜트/

포럼, IEC(국제교육협력기구) 등을 통한 인재 발굴, 양성, 활동협력, 목회, 선교사역을 하는 국제적인 기관이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고 1명이 전도사 임명을 받았다. 이날 남미 페루에 운영 중인 GGU 책임자로 김일호 박사, 뉴욕 동 미동부 지역 책임자로 로무홍 박사를 임명했다. 한편 28주년을 맞는 미드웨스트

트대학교(이사장 Rep. Lindell F. Shumake), 총장 Dr. James Song) 학위수여식이 6월 13일 본교 강당(정진경박사 기념빌딩)에서 거행됐다. 교무처장 오명환 교수의 사회로 김일호 교수의 지도에 의해 공화당 미주지역 하원의원이며 지역 교육분과위원인 Rep. Kurt M. Bahr가 학위수여식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제임스송 총장은 총장 메시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비전을 꿈꾸며 도전 정신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학사 3명, 석사 28명, 박사 9명 등 총 39명이 학위를 받았다. 축사에는 최일식 박사(본교동문, KIMNET 상임회장)와 Mayor, City of Wentzville(웬스빌 시 시장) Mr. Nick Guccione 등이 맡았으며 Joseph Park 본교 음악교수가 축가를 불렀다. 본교 이사이며 미주동문회장 강대혁 박사가 축도를 하므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또 저녁 7시부터 본교 28주년 기념 섬머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재학생들과 졸업생, 바리톤 박요셉 교수, 웹스터대학교 Linda Phipps 교수, 그리고 지역교회의 콰이어 및 미드웨스트 연합교회어의 참여로 성대하게 이뤄졌다.

(기사제공: IEA&미드웨스트대학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늘기쁜교회 임직식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설립 14주년을 맞아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을 갖는다. 일시는 6월 29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 ▲문의: (718)359-0691

뉴욕청소년센터 연합수련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창섭 목사) 여름 연합수련회가 6월 29일(주)부터 7월 1일(화)까지 2박3일간 "God You Neighbour, Do you Love (?) " 주제로 로즈데일 수양관에서 열린다. ▲문의: (646)824-1857

헬핑핸드미션네트워크 단기선교팀 추가 모집

헬핑핸드미션네트워크(대표 조항석 목사)가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8월 단기 선교팀을 추가 모집한다. 학생 3-4명. 8월 18일(월)부터 25일(월)까지 아이티 고아원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로 중심지로 구호 사역을 갖는다. 참가비는 항공료 포함 1,195달러이며 7월 1일 이후에는 10달러가 추가된다. 6월 22일(일)부터 매주 오후에 2시간씩 훈련이 있으며 약기를 다룰 줄 알면 더 좋다. ▲문의: (201)446-4466 chohenry01@gmail.com

암환자자녀 돕기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암환자자녀 장학금 기금모금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오는 28일(토) 오후 7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뉴욕권사 선교연합장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혜영 씨, 바리톤 조형식 씨, 첼리스트 윤지현 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718)460-5506



퀸즈장로교회가 주최한 어린이 찬양집회를 마치고 하랑예찬 단원들과 김성국 목사부부가 기념촬영 했다.

"Jesus is My Super Hero 2"

퀸즈장로교회 하랑예찬, 어린이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한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 Hero 2"가 지난 21일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하랑예찬(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주관으로 열린 이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전도집회다.

집회는 2개의 초대형 화면이 설치된 가운데 하랑예찬의 찬양과 바디워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배트맨, 아이언맨 등 세상의 영웅들이 등장했으며 스카이다이버로 분장한 김도현 목사(EM 담당)가 영화에 처처럼 밧줄을 타고 2층에서 내려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신(Jesus is My Super Hero)"을 어린이들에게 전했다. 또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집회는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퀸즈장로교회 5-8세 어린이 20여명으로 구성된 찬양울동팀 하랑예찬은 1기 11명과 2기 9명이 있으며, 단원 어린이들은 2-3년간 찬양과 말씀으로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유원정 기자)

"1불이면 두 학생이 1년간 성경공부"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기자회견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가 지난 19일 저녁 산수갑산II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과테말라 공립 초등학교 120만 명 학생들에게 배부될 성경교재 모금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모금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재홍 목사(뉴욕신교회)는 현 지 방편 사진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과테말라 4개 교육청에서 도덕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전도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활동의 목사(뉴비전교회 담임, 뉴욕목사회 회장)의 기도 후 김남수 목사(프라미스코교회 담임)의 말씀,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회 담임, 뉴욕청소년센터 대표)의 축도로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테말라에 성경교재 보내기 운동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일

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개인 이기주의와 경쟁심을 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맡기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 6월 월례회가 지난 18일 가톨릭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려 콜롬비아 방문 및 후원회 위해 통성 기도했다.

회의에 앞선 예배는 임병남 목사 인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축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처럼 40세가 되어 20년 묵히 동안 내 뜻대로 한 것이 거의 없다"며,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서 진행돼왔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장로로 섬기려 했던 것, 3년 교제한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만난 지 한달 만에 현재 아내와 결혼한 것, 조기은씨 후 선교사로서의 사역 등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며, "선교 시기와 선교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됨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기아대책도 단순한 구제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서 제작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조기와 모자를 선보이고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콜롬비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방문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후원단체 연결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홍보대사 김정화 씨의 득남 축하카드 작성 등을 했다.

이날 특별히 예정에 없던 김순애 목사의 북한 선교사역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 김 목사는 북한에 2시간으로 들어가서 6-7세 어린이 200여명의 유아원을 돌보고, 빵과 국수를 제공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간증해 모두가 감명을 받았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이날 한국에서 제작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조기와 모자를 선보이고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콜롬비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방문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후원단체 연결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홍보대사 김정화 씨의 득남 축하카드 작성 등을 했다. 이번 회기 중간 재정보고는 스아동후원: 지출 10,656달러, 잔액 5,747.29달러 △일반회계: 수입 5,682.81달러, 지출 3,041.81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오는 29일로 계획됐던 엘 피스찬양단(단장 김정길 집사)의 후원음악회는 사정상 전면 취소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6월 월례초청예배가 지난 19일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소의섭 목사 사회로 임지웅 목사의 기도, 박효성 목사 설교, 김병서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해 전하며,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결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원로목사회 다음 모임은 뉴욕성서교회(담임 김종일 목사) 초청으로 7월 8일(화) 오전 11시 선전 메도우 파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장로연합회 6월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 25차 뉴욕장로연합회 6월 목요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월례 목요초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제 25차를 맞아 뉴하트선교회(담임 정민철 목사) 선교

에서 열렸다. 반주 손옥아 권사, 사회 김명신 장로, 대표기도 임형빈 장로, 설교 정민철 목사("나도 너희를 보내노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ew York, New Jersey, Florida, and others,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예배보다 월드컵 경기가 우선? 알제리전 시청위해 예배시간 변경...찬반양론

한인들 라디오코리아광장 앞 등 곳곳서 한국대표팀 선전 기원

2014 브라질월드컵 조별예선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한국과 알제리의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가 열린 22일 정오에 서부지역 각 교회에서 축구경기 시간에 맞춰 예배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타운 내 한 교인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정된 예배시간을 축구를 보기위해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웬지 서글퍼지는 느낌이다. 어느 때보다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중요한 경기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축구가 우선시 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소외당하시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주일성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속엔 온통 축구로 가득차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 실패한 것이다. 차라리 예배시간을 조정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이 기쁜 함성이 16강 진출까지 이어졌으면...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장소인 월셔잔디광장에서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하는 응원단의 모습

방해도 받지 않게 뿔뿔이 예배 후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교인들 간의 친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배시간까지 변경되는 분위기 가운데 H조에 속한 한국의 23명 대국전사들의 활약을 보기위해 많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러시아전을 비롯해 22일 알제리전까지 한인들은 라디오

코리아 앞 월셔 잔디광장과 코리아 타운플라자, 마당골, LA 다운타운 탐스 어반 및 한인타운 내 각 음식점 등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한인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LA청년사역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주강사로 나선 양승훈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LA 청년사역 로드맵 컨퍼런스 23일과 24일 나침반교회에서

2014 건강한 청년/대학부의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LA청년사역 로드맵 컨퍼런스가 양승훈 목사(청년목회자연합훈련원 EMC 대표, 비재교회 담임)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23일과 24일 양일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호 목사)에서 LA/OC/동부 청년사역자 모임 주최로 열렸다.

첫날 양승훈 목사는 "청년목회를 할 때 QT를 통한 경건의 시간, 성경연구 및 경건서적 구독 등을 통해 개인적 성장이 되어야 하며, 예배와 소그룹 성경공부 등 정기모임, 제자훈련과 리더모임, 합심기도회와 중보기도 등을 통한 관계적 성장, 그리고 수련회와 사경회 등을 통해 사역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공동체에는 지적인 부분에 대해 갈등을 느끼는 청년들과 소외계층을 돕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스테

했다.

또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대형스 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열린 응원을 했다. 월셔 잔디광장에서는 광장을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초여름 뜨거운 LA의 한 낮의 뜨거움을 뛰어넘는 열기로 가득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한국 팀을 응원하기위해 외국인들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참여해 '대-한국'을 외치며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는 마치 자국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응원인파를 취재하기위해 SBS, JTBC 등 한국 언론은 물론 미주류방송사 ABC에서도 응원 장소인 월셔 잔디광장에 취재를 하는 모습이 연중돼 한인들의 거리응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두 번째 경기까지 1무1패를 기록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팀의 조별예선 통과여부는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결정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주님의교회 학부모 세미나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2세의 신앙교육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29일(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한다. 강사는 이학준 교수(풀러 신학대학원 윤리학 & 2세 교육 단계 G2G Founder)이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체성 문제로 흔들리는 자녀들의 신앙관에 관한 세미나이다.

▲문의: (626)965-9191

늘기쁨교회 이전감사에배

늘기쁨교회(담임 지용웅 목사)가 7651 5Th St, Buena Park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29일(주) 오후 4시 이전감사에배 및 행사를 갖는다.

▲문의: (714)521-8969, 654-1961



남가주교협 6월 정기월례회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원로목사회, 교협에 감사패 전달 남가주교협 6월 정기월례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6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6월 정기월례회를 갖고 5월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예정된 행사에 대한 토의를 했다.

이날 월례회에서 남가주한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이태환 목사, 이하 원로목사회)는 지난 달 남가주교협이 원로목사 초청 그랜드캐년 여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태환 원로목사회 회장은 "교협이 원로 목회자들을 위해 쉽지 않은 일을 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교협과 원로목사회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됐다"며, "특별히 귀한 선물과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효우 회장님과 귀한 강의를 해주시고, 목사님들을 살펴주신 남산당 한의원 김용훈 원장과 8체질 전문한의원 정재영 목사님께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95명의 원로목사부부를 초청, 2박3일간 그랜드캐년으로 조이캠프를 다녀온 바 있다. 한편 남가주교협은 '사모님 영성 캠프 및 세미나', '미스바 3차대회', '성지순례', '장학금 전달식'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고 김명도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한국장외에서 열렸다.

고 김명도 목사 천국환송예배

고 김명도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24일 오전 9시30분 한국장외에서 열렸다. 고인은 지난 17일 오후 8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9세.

김삼도 목사(엘바인할렘루야교회 담임)의 집례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공관식 목사(KAPC 필라델피아 노회)의 기도, 손자 영훈 군의 조가, 황은영 목사(KAPC 증경총회장)가 '영원한 본향'(히11:1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약력소개에 이어 손녀들이 조사를 했다. 칼빈신학대학원 제자일동의 조가에 이어 이창배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23일 오후6시에 열린 입관예배는 김복진 목사(칼빈신학대학원 학장) 집례로 열렸으며 하관예식은 24일 오전 11시30분 로스힐 공원묘지에서 김철직 목사(KAPC 총무) 집례로 열렸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졸업,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M.Div, Th.M, D.Min) 졸업, KAPC 총무, 북미주보수장도교단 및 개혁교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미국개혁신학교, 국제개혁신학교 등 여러 신학교 예수 교수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은옥 사모 외 2남1녀와 손자녀들이 있다.

(박준호 기자)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Jesus Healing, Total Healing' 한미의료선교회 주최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한미의료선교회(회장 윌리엄 한 박사)가 주최한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가 20일과 21일 양일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열렸다.

'Jesus Healing, Total Healing(살전 5:21)'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료선교대회는 수지김 박사(말라위 대양간호대학 학장), 안신기 박사(연세대학교 의료선교센터 디렉터), 데이빗 톰슨 박사(PASC 디렉터), 김춘근 장로(자마 대표)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4개의 워크샵, 2차례 선교보고 등을 가졌다.

양유식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 회장은 "한미의료선교대회는 한국과 미주와 오세아니아에서 흠어져 있던 의료인들이 2년마다 각 지역

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의료선교에 대한 정보와 전략의 교환뿐만 아니라 열정과 헌신을 서로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젊은이들에게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워크샵은 레이몬드 최 박사, 조디 콜린지 박사, 스킷 리 박사, 권종승 목사, 사무엘 폴란드 박사, 수지 김 박사, 박준범 박사, 안신기 박사, 전은상 박사, 스텐 롤랜드 목사, 밥심 박사, 안야나 목사, 웨리 오도넬 박사, 강영창 박사, 피터 정 박사, 버튼 리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Culture Institute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베데스다대학교 37회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학위수여자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베데스다대학교 37회 학위수여식 총 58명 졸업, 올 가을학기 LA분교 설립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송영준 목사)는 제37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21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했다. 졸업식은 58명의 졸업생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현배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우성영 학우가 미국국가제정에 이어 학사보고, 송영준 총장이 학위 및 상장 수여, 동문

회장 최명상 목사가 동문회 사은품 수여로 이어졌다.

졸업생 대표 이영자 씨가 졸업생 인사를, 케빈 셀게로, 엔리케 로메로, 호세 로페스 등 학생대표가 나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송영준 총장과 본교 공동이사장 봉희 목사(싱가포르 시티하비스트교회 담임)가 축사했으며 정승철 교수와 에스더 조 교수의 축하연주가 있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전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진유철 목사의 축도로 시작했다.

한편 학위수여식에 앞서 진행된 1부 졸업예배는 본교 신학과장 김신호 교수의 사회로 시작, 잔 스트라지스 교수가 기도 및 성경봉독을, 켈빈 박 교수가 색서폰 특주를 했으며 진유철 목사가 설교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6년 조용기 목사가 글로벌 영적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가을학기부터는 LA 분교를 설립해 에나하임 본교와 함께 MBA, Legal Administration, Sports Management 등의 새로운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도 학위수여자는 목회학 석사 18명을 비롯, 석사학석사, 음악학사, 경영학학사, 신학학사, 디자인학사, 음악학사, 유아교육학사, IT학사 등 총 5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입학문의 : 714-683-1401, 1207, admissions@buc.edu (박준호 기자)

한성연 대표회장에 이신웅 목사 선임 기성 예성 나성 연합 정기총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신길교회(이신웅 목사)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신웅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을 제5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기동 대한기독교나사렛교회(나성) 총회 감독, 이종복 예수교대 한성결교회(예성) 총회장은 공동회장에 추대됐다. 한성연은 기성, 예성, 나성 등 3개 성결교단의 연합기관으로 예성, 기성, 나성 순으로 각 교단 총회장이 임기 1년인 대표회장을 맡는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성연의 모든 회원교단이 때려야

떨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3개 성결교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성결복음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각 교단의 장점을 서로 나누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성공적 연합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연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두성 전 예성 총회장은 "우리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처럼 같은 이름 아래 팔호를 써서 교단을 표시하는 것은 어떨겠느냐"며 "한국성결교회(기성)

한국성결교회(예성) 한국성결교회(나사렛)와 같은 교단명 사용을 공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조일래 전 기성 총회장은 한성연에서 "성결 복음을 세상에 더욱 확산시키는 한성연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식 전 나성 총회 감독은 축사에서 "나성의 교세는 기성의 10분의 1, 예성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한성연에서는 늘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며 "이처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기성과 예성의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남석 전 기성 총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성연을 계속 발전시켜 성결의 빛을 이 나라 곳곳에 비추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3개 교단의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예배에서는 한기동 감독이 '의의 길로 인도 하심'을 주제로 설교했다.

"역사와 은혜 잊지 말고, 한국사회 보듬자" 새에덴교회, 6·25 참전용사 초청 보은예배

제64주년 6·25전쟁 상기 및 참전용사 초청 보은예배가 22일 오후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내 참전용사들을 교회로 초청해 가진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 순으로 열렸다. 예배는 기수 입장 및 헌영 광과례, 참전용사들의 입장으로 시작돼 이도상 집사(예비역 중장)의 대표기도, 서범석 장로(전 교육부 차관)의 성경봉독 후 소강석 목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셨습니다"(사1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게 돼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6·25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국군이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넘기지 않으셨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경병을 누리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박주목 목사(백석예술대)의 애국가 제창, 새에덴교회 장로회장인 서광수 장로(예수대 총장)의 환영사와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의 격려사, 황진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축사, 류오희 6·25 참전유공자회 용인지회장의 답

사, 미국 현지 행사를 위해 수고한 김종대 장로(예비역 해군제독)에게 공로와 증정, 안명환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한편 새에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6월 해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8번째 보은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15일 소강석 목사 등이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로 건너가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행사는 LA와 워싱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신을 보냈다. 소강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 노병을 통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새에덴교회 온 성도가 이 일을 8번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난날의 아픈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사회를 보듬을 수 있도록 섬기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태극전사' 경기장서 뿔 때... '선교전사' 밖에서 같이 뛰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 첫 한국경기와 함께 현지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선교도 18일부터 서막을 올렸다.

이날 한국 대표팀이 러시아와 첫 경기를 가진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 인근에서 브라질월드컵 한국선교운동본부와 브라질 한인선교네트워크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온 응원단과 현지인, 외국인들에게 선교용 DVD '더 프라이즈 언더 프레서' 5000여개를 나눠줬다.

이날 선교는 한국선교운동본부 회원을 비롯해 흥기원 브라질 선교사, 현지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 전도팀, 일본인 선교사 파올로 노리조 2세 등 20여명이 함께했다고 최한국 한국선교운동본부 대표가 전했다. 이들은 경기 시작 5시간 전에 도착해 기도하고 선교용 DVD를 점검했다. DVD에는 월드컵 스타들의 간증과 영화 '예

수', 결신자를 위한 영접 기도문이 담겨 있다.

최 목사는 "전 세계 스포츠 선교단체들이 월드컵 개막전부터 브라질에 도착해 선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인들에게는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 월드컵 선교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대표팀의 무승부 소식도 경기장 근처에서 들었다. 전도를 하던 경기결과를 접한 브라질의 '영원한 예수사랑 교회' 김영호 집사는 "1승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무승부도 좋았다"며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교운동본부의 또 다른 팀은 이란과 나이지리아전이 열렸던 쿠리치바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브라질 한인교회 성도 10여명과 브라질 어린이전도협회 회원 30여명은 경기장 근처에서 관광객들에게 선교용 DVD를 선

물로 전했다.

한국선교운동본부 회원과 브라질 한인교회 성도 60여명은 브라질월드컵이 개막한 지난 13일 상파울루에 모여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상으로 DVD 6000여개를 배포했다. 한국선교운동본부는 DVD 6만여개를 한국에서 제작해 브라질로 보냈다. 이중 3만여개가 브라질 어린이전도협회에 전달됐다. 브라질 한인교회 성도들은 제작비의 60%를 부담했다.

브라질월드컵 해외 선교팀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한국팀의 주요 사역이 DVD를 주는 것이라면 이들은 직접 축구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 국제대학생선교회(CCC) 스포츠선교팀은 지난 2주 동안 벨로 오리존치에서 아이들 1000여 명에게 축구를 가르쳤고, 국제예수전도단은 '길거리 축구 경기'를 하며 브라질 청소년들과 어울렸다. 한국대표팀의 세 번째 경기가 열리는 오는 27일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미디어선교회 관계자 등 한국선교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현지에 합류한다.

제11회 훌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양병희 목사, 강현식 목사, 김종양 목사, 정금성 권사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에 수여하는 '훌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이 지난 19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양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이사장 안준배 목사) 훌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총재 나경일 목사, 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제11회 훌리 스피

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하고, 목회자, 부흥사, 평신도, 선교사 4개 부문에서 시상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 부흥사부문 강현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 담임), 선교사 김종양 목사(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평신도 정금성 권사(새에덴교회)다.

시상식은 세계성령중양협의회

상임회장 최길학 목사의 사회로 나경일 소강석 안준배 장항희 이은대 유순일 손문수 이병호 김창근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했으며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4-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등불같이 빛난 사역"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정인찬 목사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의 길이 된다"고 하며, 성령의 사람의 발자취는 한국교회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양협의회)

독자투고

안춘실 권사 (빌리델비아 교회)

용서- '용서는 인내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담은 그릇'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내 마음에 내적 변화를 주시길 믿는다.

나는 먼저 '용서'(저자: Chalse Stanly)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이 책의 표지는 유난히 부드럽러

고 이 책을 만지는 순간 용서하는 마음이란 것이 이런 부드러움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용서와 자유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을 덮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라"고 끝을 맺고 있다.

'믿음과 용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서와 고백',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우리자신에 대한 용서' 등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목자가 바로 죄로 멸망할 우리를 용서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책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란 질문을 갖게 되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의 상황판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려고 제시하고 있다.

포드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을 사면한 것은 닉슨의 무죄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닌 공적인 지위를 존중해서였다고 한다. 이 말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용서하고 해방길 속에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이다.

용서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 혼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 자국을 지니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독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구로부터 분리될 뿐 아니라 우리 영적, 정서적 행복과 건강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 용서 받기 위하여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사랑은 상대를 극진히 여기는 것이다. 때로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계속 손을 내밀고 주려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쏟아 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극

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형제가 넘어졌을 때 관심을 갖고 그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행여나 내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용서'의 책, 마지막장을 덮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 우리의 만난 속에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었으면 좋겠다. 이 상처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져서 진주 같은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사랑의 나누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벌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엔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학생: 오전 10:00 (8월-11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남예배: 오전 10:45 주일중앙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영) 토요일예배: 오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d.org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중앙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영)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어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새벽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10)

선교여행(Mission Trip)과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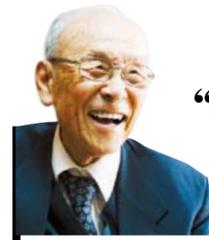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선교지는 몸살을 앓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나간 자국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팀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그간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사역의 양태와 결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반적 방문이나 단순여행이면서도 많은 경우

며 인원은 7-15명 정도가 좋다. 첫째로 선교지 이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다. 명승고적, 박물관, 시장, 백화점, 대학, 현지인 가정방문 등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선교지에 왔는데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태권도 훈련, 의료봉사, 미용봉사, 우물 파주기, 집수리 등 다양하다. 단기선교가 효과적이라면 선교전략, 타문화 이해, 영적인 훈련, 자기 전문성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중, 장기 선교

니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문제도 야기됐다. 아무튼 단순여행(Traveling), 선교여행(Mission Trip),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 장기선교(Long Term Mission) 모두가 귀하며 독자적 가치가 있다. 이것들은 나름대로 제 특징이 있으며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에 순차적으로 발전하면 더욱 이상적이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맺는 말



방지일 칼럼 (45) "본대로 들은 대로" 성장의 비결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주는 일을 본분으로 할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었다. 근자에 성장학이 신학교에 있어 배워 실제 목회 실천한다.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도 한다. 교회성장 세미나도 있어 대형 소형 집회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목회자들이 듣는다. 배운다. 사람의 본분은 함게 피나게 감당하러나와 인간의 어떤 방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함도 망상일뿐이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고용하여 연구케 하고 그 연구로 나온 방안대로 교회를 대형으로 자라게 한다는 소식도 들어온다. 교세가 물량적으로 대형 인원 대에산대사업 이런 기업체 사업체가 되어지는 성장을 교회성장이라 할 수 있을까 모름지기 개 교인들이 나날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교회가 큰 사업체 같이 되자면 교회 성장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는 아니다. 앞으로 역사에 바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닮아짐이 성장의 절정이라.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렇게 성장함은 교회의 성장이 되어진다. 심는 본분 물을 주는 본분을 할 뿐 성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벼 모가 한잎 두잎 자라남을 볼 때마다 이 모를 낸 농부는, 물을 대어준 농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심을 크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넘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내 신앙의 성장이 차차 깊어진다. 믿음이 자란다. 성경말씀이 날마다 깊어져 그 말씀의 맛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또 고상해진다.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의 채널이 넓어진다. 또 깊어도 진다. 그에게 보고하고야 만다. 의논하고야 어떤 단안을 내린다. 그 없이는 못산다. 그가 내안에 계시다. 그도 나 없이는 안된다. 여기까지 자란다. 사람을 볼 때 그 육을 보지 않고 그 영을 본다. 그 영명이 어떠한지 바로 진단된다. 영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영을 사랑한다. 그 영을 주께 인도하고자 견딘다. 이렇게 자란다. 전도 선교하지 않고선 못 견딘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을 안다. 파수군의 책임을 바로 지고 산다.

신앙의 자람에 말씀 기도 전도 이 삼면이 균등하게 자란다. 대사업체의 사장이요 회장의 직은 가질지라도 성경 기도 전도엔 그리 관심이 없다. 이런 분은 신앙의 자람이라 함을 모른다 할 것이다. 성경의 맛을 더 들음이 자람의 표이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감에 골방에 앉아 믿음이 자람이다.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못살게 됨이 믿음의 성장의 증거라 할 것이다.

성경 기도 전도에서 그 신앙의 자람이 들어날 뿐이다. 성장의 어떤 비결을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면으로 찾아본다. 그런 방법을 세워 그대로 실천하여 대교회회를 이룰 수는 있을 터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기업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그가 자라게 하신다. 그의 주권 하에 있다. 그는 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를 그리스도의 요청하신대로 보내 주신 바이다. 그가 오셔서 내 죄를 지적하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맛을 알게 하사 사 먹어 충족한 영양을 갖게 하신다. 예수를 속죄주로 믿지 아니한 그를 기어히 믿게 한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피하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다 하나님께 있음이다. 인간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자기 방만이 나온다. 야욕이 그러한 것이다. 자기 능력이 하나님께 투항하여질 때에 이스라엘의 이력을 얻은 바이다. 이스라엘 되어서야 성장의 걸음을 걷게 됨이겠다.

목자된 소명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열심으로 심는, 물주는 본분을 감당만 하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여주신다.

(1996년, 3권)

선교여행(Mission Trip)은 "선교지 이해, 선교훈련, 협력사역"이라는 다중적 목표가 있다. 그러나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는 오직 사역"이라는 한 가지 목표이어야 한다.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단기"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다보면 선교를 이해하기보다는 방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는 문화여행 또는 선교지 답사 정도로만 인식하기 쉽다.

선교는 지역적인 경계보다 문화적인 경계를 넘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단일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 한국선교 팀은 많은 장점에 비해 타 문화이해와 존중, 복음을 토속문화에 맞추어 전달하는 훈련, 외국어 능력 등이 있어 태생적 약점이 있다. 더욱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현지사정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온 한국교회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교여행(Mission Trip)

이는 대체적으로 선교지 이해, 선교훈련, 협력사역이란 3가지 목표가 있다. 기간은 2주 전후이

둘째로 선교훈련을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선교지 역사와 문화, 생활습관, 사회적 이슈(Issue), 현지교회의 현황, 언어훈련, 선교학, 공동체 생활 등이다. 특히 일정기간 짜여진 틀에 따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셋째로 협력사역이다. 내용으로는 땅 밟기 중보기도,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전도, 교육, 간증, 설교, 상담, 치료, 사회봉사 등등 각자 준비된 것으로 사역을 하는 일이다. 협력이란 방문자가 새로운 일을 창안해내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현지 사역을 건강하게 세우며 뒷받침해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기선교 (Short Term Mission)

이는 오직 한 가지 "사역"이라는 단순목표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은 단기선교의 근본 취지와 힘을 분산시키게 된다. 이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2년 미만이며 말

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사역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기선교는 주로 '팀' 위주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점 '소수화', '전문화' '조직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단기선교가 '왜(why)'에서 '어떻게(how)'의 개념으로 바뀌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선교여행(Mission Trip)과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의 차이점

이는 그 초점이 "방문자인가 아니면 피선교지민인가? 복합목표인가, 단순목표인가? 대원이 다수인가, 소수인가? 일회성이거나, 지속성인가? 단(短) 기간인가, 중(中) 기간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아무래도 단기선교는 선교지 탐방과 방문자의 훈련에 중점이 있고 단기선교는 사역에 중점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었다. 이 분야에 선교신학도 미미했다. 이에 그간 유행처럼 교회나 단체가 여름철 10여 명씩 팀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은 대부분 선교여행이었다. 이것을 단기선교로 오해하

선교여행(Mission Trip)인가 아니면 단기선교(Short Term Mission)인가? 중요한 것은 선교적 열심으로 사역지를 방문하는 개인이나 팀들은 처음부터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이 정해지면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실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철저히 현지 사정을 숙지하고 있는 선교사의 도움과 지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라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역의 결과도 좋지 않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현지 사역자와 계속 소통하며 선교적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서 미흡하고 자기 생각과 대치되는 것들이 있다면 쉽게 판단하고 퍼뜨리기보다 중보하며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아니라 선교사는 실족하거나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에게 방문객은 위로 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섭다. 그들은 한 번 방문으로 끝나지만 현지 선교사는 평생, 오는 이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825-0100, Cell: (714)844-8377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회: 오전 9:00, 11:0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2:3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방목: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둥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인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인1부예배: 오전 9:30 영인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월~토)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예배4부: 오후 1: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회: 오후 1:00(수요일~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직원주일예배: 오전 11:00	엘바인침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7:3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전 11:30(전통) 주일5부예배: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회: 오전 9: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전 6:0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영인) 주일6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펴기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기로 메말랐던 해갈된 땅에 씨앗을 뿌리는 손길들이 바빠집니다. 아직 원시적 방법의 농법입니다. 추수를 소망하는 촌부들의 정성 어린 마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기 때는 흙먼지로 인하여, 우기인 지금은 진흙탕으로 인하여 산길을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난 토요일(5월 10일)에는 세이비타교회 헌당예배를 우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수 주간은 세월호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호흡이 정지된 듯한 숨막히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기도하며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먼저 나의 "세월호"는 순항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의 "세월호"는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 "세월호"는 잘 항해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일은 "기본기"와 "전문성"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이 즉 근본인데 우리는 너무 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는가? 미국의 강점은 저는 "줄서기"와 운전하면서 "STOP" 사인에서 모두가 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본이지요. 최첨단 시대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오. 그러나 기본기가 없는 전문성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지요.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선교회 그리고 선교사는 기본이 충실한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여 기본과 전문성이 없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는 바로 침몰하는 "세월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5월 10일 세이비타교회 봉헌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인근 산골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밋소리와 아름다운 찬양의 코러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 성령의 임재, 산골마을에 울려 퍼지는 기도로 봉헌 되었습니다. 비록 우중에 남루한 옷에 흙 묻은 맨발로 말끔한 교회바닥이 진흙탕이 되었지만 아름다운 예배는 그 어디에 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암부로서 목사님이 아주 신이 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65명이라고 저

에게 명단을 주시더군요. 작은 헌신과 헌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산골마을에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는 그 어느 곳보다 값진 일이라 여겨집니다. 봉헌기도를 하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며 말을 이을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에블로 비에호 교회의 건축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화장실 공사, 문과 창문을 달고 전기공사, 그리고 교회 비품들(의자, 강대상 등)이 구비되면 됩니다. 봉헌예배는 8월 중에 드릴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7-9일에는 치과 의사 Brenden Leaser가 이곳을 방문하여 치과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삶으로 섬기는 Brenden은 미시간 주에서 이곳에 와서 스페인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성심껏 아자

꾸알과, 몽케카구아, 세롬 교회를 섬겨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말(24-31일)에는 뉴욕 맨해튼 선교교회에서 단기선교로 섬겨 주십니다. 24일에는 부부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롬교회 목사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롬교회 담임으로 Antonio Perez 목사님께서 오셔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법인등록: 온두라스 정부에 법인등록을 위하여 3. 교회 사역: 이미 세워진 교회(아자꾸알과 교회, 몽케카구아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름교회, 부에블로 비에호 교회, 까스타노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Pueblo Viejo)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도

록 4. 학교 사역: 겨자씨학교 아자꾸알과, 겨자씨학교 몽케카구아,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5. SEAN Honduras 사역: 목회자 훈련 및 지도자 양육을 위한 SEAN 사역을 통하여 좋은 목회자들이 양육되도록 6.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7. 여름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하여 8.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암부로서 오 형제, 디오니시오 형제, 안토니오 페레스 목사) 장세균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에티오피아

기도 동역자님께, 평안으로 인사드리며 문안드립니다. 교회와 선교 가족에게도 안부드리며 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잠전용사인 스카투 할아버지와 가족은 잘 계시고, 분주하게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 때마다 안부를 늘 묻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드리는 기도 소식을 드립니다.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사역은: 1. 아디스아바바 단과 대학들의 종강과 졸업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 2. 미진한 사역을 돌보고/유치원 건축 계획/교회 개척/성경공부 자료 번역 편집 등

3. 성경 인쇄 마무리를 하고/신구약 인쇄 가능성 등 4. 단기선교팀의 인도 5. 미전도 접촉 지역인 오로모 쉐페와 프로 지역에 헬리미션의 헬리콥터로 탐사하기 지난주는 복음 미접촉 지역에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지역에 Helli Mission의 헬리콥터로 강건너의 미접촉 지역 사람들을 리서치하고 만남의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한곳은 발견했고, 또 한곳은 한 시간 넘게 찾았지만, 방대한 지역이라 헬리 미션의 도움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건기 때에 산악을 걸어서 재탐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은 소식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인쇄기로 처음 시도하는 성경 인쇄의 어려움에 직면하다: 인쇄가 한대로 처음으로 대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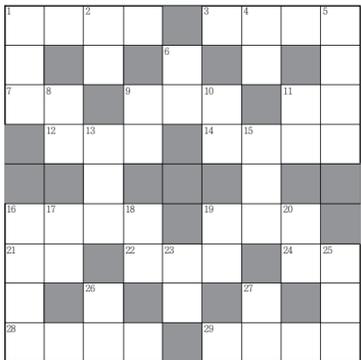
성경 2권을 먼저 인쇄하는데 아주 힘들게 마쳤고, 그 사이에 신학교 교재 등 4권을 인쇄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밀려온 두 권의 신학사전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같으면 한 주면 인쇄가 마칠 수 있는데 답답하지만 합니다. 지난 성경봉헌 후 바로 추가 4천 권을 인쇄해 성탄 전도집회를 모은 아디스 각 단과 대학에 일정 잡아서 인쇄되기만을 기다려왔었지만 대학생들의 실망감을 함께 보고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게 했습

니다. 추가로 4천권 인쇄 진행 중 전기가 나가고 직원이 아프고, 장기 휴가가고, 늘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일정에 못 마칠 수 있어 억지로 부탁해서 2천권만 추가로 인쇄해서 각 단과 대학에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1. 앞으로 2천권을 인쇄해서 9-10월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신입생 전도집회를 열어 성경 나누

기를 하려고합니다. 2. 각 7개 단과대학 리더들 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전도집회와 성경나누기, 설교/제자훈련/리더 훈련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지도자 훈련을 위해 '목적 이끄는 교회' 성경공부 교재 101-401중, 101를 번역 최종 편집 인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구약 성경 합본 인쇄 가능 성 열려 또 한가지는 아디스아바바 시내에 현지 장로님이 최신 인쇄시설 기계를 독일에서 2세 수입해왔고 종이도 성경의 절반 두께인 37mg를 인쇄 종이 수급되어, 인쇄는 장로님 인쇄소에서, 바인딩과 마무리는 선교부에서 하려고 의논 중입니다. 현재 추가 인쇄에 대해 결정이 되는대로 일정 소식을 드

십자말 • Cross Word (42)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창32:28).
3.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삼하4:4).
7. 돌대가리(명사).
9. 목에 거는 장식물(시73:6).
11. 활시위에 오늬를 매워서 당기어 쏘는 기구(렘51:11).
12. 집, 성, 다리 따위를 세우는 사람(막12:10).
14. 온 몸이 흠집투성이가 되어 형편없이 됨(고사성어).
16. 하늘에서 짝지어 준 연분(고사성어).
19. 나쁜 사람(요일5:19).
21.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상식).
22. 원(圓)의 절반 모양(양상7:31).
24. 남달리의 한 성읍(수19:33).
28. 일광 절약시간(상식).
29. 마리아가 가로되 ○○○ 주를 찬양하며(눅1:46).

<세로 푸는 열쇠>

1. 2만 섬(대하2:10).
2. 므두사엘의 아들이요, 인류최초로 두 아내를 거느린 사람(창4:19).

4. 사람이 쫓대가 없고 하는 것이 천함(시146:8).
5. 세를 내고 방을 빌려 줌(상식).
6. 남에게 돈 따위를 비는 일(행3:3).
8. 상중에 머리에 쓰는 베로 만든 쓰개(출39:28).
9. 양을 치는 사람(삼13:7).
10. 일천의 스무곱(대하2:10).
11. 날씨가 맑아 온화하고 맑음(아1:16).
13. 기쁘고 즐거운 잔치(상식).
15.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는(요삼1:5).
16. 찬송가293장 "OOOO 만나보자"
17. 상상하고 합한 기운(전8:8).
18. 여러 반으로 나눔(삼6:18).
19. 악독한 형벌(히11:35).
20. 피륙 따위의 아래로 드러난 넓은 조각(삼상24:5).
23. 멀고 가까움(예9:20).
25. 매미의 유충, 누에 비슷하나 몸이 짧고 뚱뚱함(명사).
26. 그것 외에 또 다른 것(딤후1:10).
27. 영원히, 언제나(나삼8:7).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131-231)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인양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역사리 북구 관음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교우실)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월요일은 워킹 헌당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석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신원동 340-1(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1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42)418-0491, Fax: (04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29(신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인양기도회: 오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사명가꾸기 (4)

지난 9월에 LA에 거주하고 있는 살롱장애인수련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7년 전에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받아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번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로 마음 설레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박모세 목사님 내외분을 보지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20여년전 교통사고로 두 팔을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사랑 하는 아내는 15일 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경추 4, 5, 6번이 마비되어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 장애인인 되었습니다. 여가 아래로는 무신경이므로 그는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곳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약하고 온전히 못함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다운신드 룬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연령은 어리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송소리에는 하나님 이 감동하실 만큼이나 진실함이 가득차여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박 사모님의 장애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정상인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 니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모두 한식구처럼 사위요 딸이라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한 번 놀 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 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인들은 감히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박 사모님 앞에서는 그 어느 사모들의 고민도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 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기에 그는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박모세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두 팔 을 잃고 아내는 평생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 는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시어 아내의 코칭을 받고 음반도 제작하였고 운동이나 언어구사에 뛰어나 오히 려 세계 9개국으로 휠체어를 기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의 내조는 위대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장애인들의 신실함에 감동 내 힘, 내 업적 앞세운 말씀능력 기대도 무너져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도 특수한 것으로 평소에는 누워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루종일 그의 몸에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낙비 같은 은혜의 단비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정신박약아에게도 은혜의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0살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지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깨어나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꼬부라진 손과 발로 걸으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이 넘쳐있었습니다. 걸모양은 말짱하지 만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머리를 다쳐서 더 이상 군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 온 청년, 그는 통증이 올 때마다 다른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친구 약으로 암송하며 통증을 견딘다고 합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들은 서로 특송하기 위해 다툵니다. 정신연령은 대체로 7세, 8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와 부족도 허용이 되는 곳입니다.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틀려도 곡조가 틀려도 심지어는 특송을 하겠다고 나와서는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는 이에게도 어느 누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용서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약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확실히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항상 정한 시간보다 일찍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빨리 걸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미리미리 서둘러 나옵니다. 한명도 이 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늦어도 아랑

남편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남편 또한 아내의 내조 없이는 모든 일을 해 낼 수 없는 남편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필자는 부부끼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새삼스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부부들에게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부족을 알고 서로 도움을 관계가 절절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이마에 땀이 흐르고 고단한 생활의 연속이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직 사랑과 희생뿐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통증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에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익히 알고 말씀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새삼 도전을 받는 이유 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조건을 끌어당기고 있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 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행한 업적으로 말씀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이 현저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라고 생각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이들에게도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 에 다시금 엎드려 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내 기도예 귀를 기울이소서!(시17:1-3)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바른 길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2, 3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나의 문제에 대해 비밀을 지켜질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온 세상에 공포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피한 일이 있을 때에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의로운 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고난을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욱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정자세를 취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시17:4-5)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좇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괴롭힌다고 같이 싸우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욱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말씀만이 위험한 길에서 보

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길이 항상 평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더욱 꼭 붙잡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시17:6)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6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는 고로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쏟았더니 들어주신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위에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17:7)

연약한 성도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가장 선

하신 방법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 손으로 구원해내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값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일어나 치는 자에게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찢쩍대시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시17:8)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는 몸의 어떤 부분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아주 민감하게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뼈의 중앙에 놓으시고 여러 겹으로 감싸시고 눈썹에 울타리를 치시고 눈꺼풀에 커튼을 치시고 속눈썹으로 담을 치시고 위험을 재빨리 감지해 눈을 자동으로 감게 하

셔서 보호하십니다. 수시로 눈을 감았다 떴다 해서 마르지 않고 하시고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와도 눈물이 나오게 해서 씻어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신비스럽고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시17:9-15)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은 위험한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만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 놓는 것보다 더 좋은 보화가 없고 기도로 쌓아 놓는 것보다 더 좋은 크레

딧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고 오직 더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고 은혜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지요!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4년 6월 24일(화, 저녁)
~ 7월 8일(화, 저녁)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 cand)/미국 ORU(D.Min)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 382-1450 www.galmelsan.or.kr

나성 동산교회 부흥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날짜 2014년 6월 26일(목, 저녁)
~ 29일(주일, 오전 11:00)

시간 저녁 7:30, 새벽 5:30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7-3920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7)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초대 교회 안에는 회중을 위한 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방 정교회는 회중 의자가 없습니다. 필자가 방문한 많은 정교회에도 의자는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의자가 놓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어렸을 때 예배당 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말씀 들

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 후 긴 초록색 치마(길고 커다란 앞치마 비슷)를 두르고 동굴 지하의 어두컴컴하고 좁은 동굴로 앞사람 따라서 들어갑니다. 옛날 수도자들의 미라가 든 관들이 많이 있는데 미라의 겹겹 메마른

렵지 않게 공산주의 시절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 안드레 사도가 키예프를 방문하여 이곳이 크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년 전 방문한 인도 끝 체나이에서는 곳곳에 도마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사도 도마가 인도를 방문하고 체나이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다는 곳이지요. 도마의 지팡이가 쫓겨 있어 쓰나미 해일이 그 지역을 피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길고 평범한 나무인 도마 지팡이가 지금도 그곳 조용한 해안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2004년 오렌지혁명 후 혁명세력은 분열하고 경제는 어려워져 친러 세력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2010년 야누코비치(친러)가 대동

급수송로 평균길이 3,430km)이 어마어마합니다. 크림은 본래 러시아 땅이 아니고 러시아가 점령하였다가 우크라이나에 돌려준 것입니다. 1783-1917년 사이 러시아제국 아래서, 1922-1991년 사이에는 구 소련연방의 지배를 받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러시아의 후르시초프(1894-1971 러시아인)가 1954년에 소련최고의회에서 크림반도를 형제동맹 300주년 기념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선물합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서기장의 고향이 우크라이나이고 어차피 한 국가에서 행정구역만 바뀌었을 뿐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됩니다. 식량 배급에서 우크라이나를 확대하는 스탈린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희망 건 젊은이들... 교육으로 신분상승 꿈꿔 개신교 중 침례교단, 공산권 70년간 지하교회에서 박해 이겨

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에 의해 예배당 안에 의자가 놓여졌습니다. 의자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오직 담배들만 의자에 앉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권력을 지닌 왕과 귀족들이 들어오면서 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결혼식 장면

11세기의 황금문(Golden Gate)은 1037년 키예프대공 야로슬라브(1019-1054 Yaroslav)에 의해 세워진 키예프 성의 3개의 출입문 중의 하나로서 콘스탄티노플의 황금의 문을 모방하여 만들었습니다. 황금의 문 앞에는 1997년에 조각한 작은 소피아성당 모형을 들고 있는 야로슬라브 동상이 빛물에 말끔히 씻겨 있습니다. 그 모습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소피아성당도 황금의 문도 야로슬라브공(Yaroslav)의 작품입니다. 1240년대 키예프를 유린한 몽골군이 지붕을 장식했던 황금을 벗기고 파괴하였다는 성문입니다. 페체르스카야 라브라(동굴수도원)는 수도사(우크라이나 최초 역사학자, 문학자, 서지학자, 수도승)가 현존하는 최초의 러시아 연대기(고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학의 앞장을 장식하는 '홀러간 시대의 연대기')를 썼던 곳으로 이 수도원의 지하묘지에는 네스토르를 비롯 수도사 및 성인들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10-12세기 동유럽의 문화 중심지는 드네프르 강을 끼고 우북 선 키예프의 페체르스카 수도원이었

손들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교도인 현지인들은 한분 한분 관위에 손을 얹고 성호를 긋고 키스를 하고 이마를 조아립니다. 그 모습에서 경건한 신앙심을 봅니다. 어머니 동상(Mother Motherland Monument)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희생된 전쟁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67년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세워졌던 동상을 모방하여 세운 것으로 영웅칭호 받은 11,600여명의 군인들과 200여명의 노동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상은 티타늄으로 구조돼 높이 62m, 530톤 무게의 거대한 동상입니다. 칼의 길이는 13m, 방패는 8m에 달합니다. 동상 근처에서 처음으로 수많은 탱크와 각종 무기들의 전시물을 직접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지만 아직까지 어

령이 된 후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하고 유럽연합과는 거부, 핵방을 하였습니다. 빅토르 유셴코(2004년) 대통령 당시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기우는 듯 하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가스밸브를 잠가버리곤 했지요.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는 가스전을 틀어쥐고 있는 푸틴 때문에 매년 러시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회사는 가스프롬(Gazprom)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 가스프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스프롬은 푸틴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기업으로 그 위용(총 파이프라인 연장 16만 8천km, 가스 압축기지 222개, 압축 기계 3,738개, 총 설치용량 약 4,400만kw, 가스관매기 3945개, 국내공급수송로 평균길이 2,780km, 해외공

그의 고향에 대한 배려는 상당하였나 봅니다. 당시엔 소련이 망할지 몰랐기에 내린 결정이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수많은 공화국들이 독립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도 그중 하나로 1991년 독립합니다. 독립할 때 크림은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어 키예프 루스를 문장으로 이어갑니다. 소련붕괴 당시 혼란상황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쟁길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동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을 감싸며 분리독립 요구를 막기 위해서 자치공화국의 성립을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부 우크라이나와 크림일대는 우크라이나의 공업기반과 가스관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갖 독립한 우크라이나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신생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23년간 통합보다는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큰 영토와 높은 공업발달수준의 우크라이나가 어려워하는 원인은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함이라고 합니다. 1991년 구소련 붕괴 후에도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향을 벗어나 EU가입을 통해 서유럽에 소속되자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염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얽혀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메일: rome8700@hanmail.net (다음호에 계속)



한국인의 건강 관리법 (1)



김광은 장로
(척추병원 원장)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건강 해쳐

한국인의 건강관리의 관심을 특별하다.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욱 건강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건강관리에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

예를 든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지키지 않고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스스로 멋대로 자가 판단에 의해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 의료인의 진료가 확실치 않으면 미국 환자들은 또 다른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신을 가지고 치료 효과를 얻고 병을 고치고 있다.

둘째로 자기병을 악화시켜 나간다.

이유는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의 병과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같은 병이라도 체질과 병 증세는 조금씩 다르고 처방이나 치료 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여 병이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 처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개개인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한인여성이 허리통증으로 두 번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았다. 그런데 이웃여인의 운동법을 따라하다가 허리 병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웃여성이 가지고 있는 허리 병을 운동법으로 고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전문의사의 처방법으로 권하는 운동법이라면 괜찮다. 그러나 비 의료인의 처방법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로 치료법 교체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현재 처방법으로 만성병을 치료하고 있다가 중단하고 다른 치료법을 찾을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특히 한인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침저녁 당뇨주사를 맞고 몇 십 년 지내던 당뇨환자가 전문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사를 중단하고 생약요법으로 몇 달을 버티다가 당뇨가 더욱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전문문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한인들은 많은 배움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연락처: (323)468-1001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3,500.00 Back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